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東還封事』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詹雪嬌

2017年 2月



『東還封事』 研究

指導教授 金 相 助

詹 雪 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詹雪嬌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Donghwan-Bongsa』 of the Study

Jeon Seol-kyo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cember, 201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Sang-Jo,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14
1. 조헌의 생애와 『동환봉사』의 역사적 배경	14
2. 조헌의 중국행과 『동환봉사』	17
3. 『동환봉사』의 세계	22
1) 국가 이념	24
2) 군주의 자세	27
3) 의례와 경제	30
4) 관인의 태도	34
5) 士民의 기풍	37
6) 국방	39
4. 『동환봉사』와 『조천일기』의 차이와 그 의미	45
III. 結論	49
<참고문헌>	52
<中文摘要>	56

I. 서론

근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조선시대의 사행기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8세기 전후에 쓰여진 작품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6세기와 그 이전 시기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연행록에 비해 소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사행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는다면 중봉 조헌의 『朝天日記』일 것이다.

『朝天日記』는 중봉이 1574년 성절사 朴希立을 따라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쓴 일기로 선조 7년 5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5개월간의 사행을 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하여 조헌이 명나라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조헌의 『조천일기』는 그의 사후 100여 년이 흐른 뒤 1748년에 간행된 중간본 『중봉집』 권 10, 11, 12에 수록되어 있다. 권10과 11에 수록된 일기는 5월 11일 궁궐에서 拜辭하는 것부터 8월 4일 북경에 도착, 9월 5일 북경을 출발, 9월 14일 영평부를 출발하는 것까지 일기로 기록되었으며 날짜, 간지, 날씨,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노정과 경험한 일을 순차적으로 적었다. 권 12에는 『中朝通報』에 1574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날짜 별로 정리해 놓았으며, 부록으로 『질정록』을 수록해 놓았다.

조헌은 명나라 생활 풍속 중 상사와 장례풍습, 관인들과 유생들의 탐욕스러움, 기복신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백성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어 명나라 조정에서 시행하는 조세에 대해 자세하게 묻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명나라의 조세 현황을 살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생활묘사 부분에서는 당시 풍습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중봉은 儒敎的 선비의 교양을 엄하게 교육받고 자랐으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學問과 實踐을 兼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면서 栗谷 李珣, 土亭 李之菡, 牛溪 成渾 등 당대 名士들은 알게 되어 이들에게 師事 받았으며, 그들과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을 성숙시키고 경론을

쌓아가게 된다. 특히 그는 栗谷을 흠모하여 자호를 後栗이라 하고 율곡의 사상을 잇고자 하였다. 중봉 개혁론의 바탕에는 율곡의 개혁론이 있으며 일부분 栗谷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흡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중봉은 드물게 진보적인 사상을 지녔으며 개혁을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봉의 성격은 너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조정에서 많은 정적을 갖게 되었고 특히 牛·栗을 지나치게 尊崇한 나머지 인물을 평함에 있어 牛·栗의 尊崇 여부로 기준을 삼아 편벽됨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서의 분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栗谷은 이를 조정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84년에 세상을 떠났다. 栗谷의 죽음은 중봉에게 있어서 스승과 知友와 후원자를 동시에 상실하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중봉은 서인들과 교우를 많이 했으며, 栗谷이 죽은 후에는 그를 옹호하려다가 西人の 先鋒으로 지목되어 東人들에게 질시의 과녁이 되어 굴곡이 심한 생애를 겪었다. 더구나 우유부단한 선조로부터 疏外를 당한 중봉의 개혁론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은 채 묵살되어, 뛰어난 그의 경론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 버리게 된다. 중봉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다양하게 개혁을 논하였다.

조헌은 1567년(明宗 2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첫 관직으로 定州牧의 教授를 역임하였다. 30세 때인 1574년에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를 지어 선조에게 올렸다. 이어서 또 「擬上十六條疏」를 지었으나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가 채택되지 않자 「擬上十六條疏」를 올리지 않았다. 『東還封事』라고 불리는 이 두 상소문을 보면 그가 중국에서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직접 목격하고 커다란 자극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82년(선조 15)에 보은현감으로 재직하였던 조헌은 백성들을 곤궁하게 만든 국내정치를 개혁하고 왜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또 1586년(선조 19)에는 「辯師誣兼論學政疏」를 올려 이이와 성혼의 사상을 적극 옹호하면서, 당시 위정자들이 나라 일을 망치고 어진 인재를 배척한다고 공격하였다. 이어서 1587년(선조 20)에 그는 또 다시 정치폐단을 논하고 상소를 써서 충청감사 권징에게 주어 왕에게 올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연루되기 싫었던 권징이 거

부하자, 조헌은 또 다시 상소문을 만들어 네 번이나 제출하였으나 모두 접수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헌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 상소문이 『중봉집』에 수록되어 있는 「陳所懷仍辭職疏疏」이다.

이러한 조헌의 상소들은 그때마다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는 당연히 그에게 수많은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이른바, 그는 1572년(선조 5) 왕의 佛供이 옳지 않다고 간하다가 파면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여러 차례의 파면과 재등용, 그리고 귀양살이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는 특히 사육신의 표충, 황제의 수정, 선비의 규율, 백성들에 대한 수탈, 조세의 경감, 노비 소유의 제한, 녹봉제도의 정비 및 관료기구의 간소화, 청춘과부의 개가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대를 앞선 혁신적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특히 조헌은 1589년(선조 22)에 임진왜란을 단지 3년 앞둔 시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조에게 「論時弊疏」를 올렸다. 자기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도끼로 목을 자를 것을 요구하는 그의 이른바 ‘持斧上疏’가 제출되자 당시의 집권층은 당황하여 그를 길주 영동역으로 서둘러 유배를 보냈다. 이처럼 조헌은 16세기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원칙론의 입장에서 혁신적 주장을 끊임없이 펴낸 진보적인 경제사상가였다.

重峯은 道學을 實踐窮行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살펴 볼 때, 그의 行跡은 道學精神에서 출발하지 않음이 없었다. 비록 빈한한 가세에 처하여서도 부모에 대한 효만은 다하였으니, 처자가 굶주리며 추위를 면치 못할 때에도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는 맛있는 음식이 떨어진 일이 없었다.¹⁾ 그리고, 아버지 判書公이 임종 때 쇠고기를 원하였으나 집안이 구차하여 드리지 못 하였는데,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쇠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에 쇠고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집안이 구차하여 드릴 수가 없었는데 어찌 차마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²⁾라고 하였다하니, 이것은 그의 지극한 효심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는 孝의 실천뿐 만 아니라 忠에 있어서도 실천으로 一貫하였다. 임진왜란

1) 조헌, 「附錄卷4 碑表」, 『중봉집』, 韓國文集叢刊 54, 526면.(이하 『중봉집』 자료의 출처는 글의 제목과 이 책의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2) 「附錄卷2 行狀」, 471면.

을 당하여 불리한 전세에 제장들이 후퇴할 것을 말할 때면 “主辱臣死 正在此時 成敗利鈍 何可願也”³⁾ 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이것으로써 殺身成仁하여 만고의 綱常을 부지하려는 忠君의 義理精神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또 전투에 임하여 의병들에게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利的를 버리고 義만을 생각 하도록 강조하였다.⁴⁾

중봉 조헌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대한 연구는 개혁사상과 실천철학 등을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실천철학은 중봉이 본받고자 했던 스승 이이의 도학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고 개혁사상은 중봉이 명나라에 질정관으로 다녀와서 임금에게 올린 『東還封事』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의외로 『東還封事』에 한정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봉집』 중에서도 『東還封事』로 한정하여 중봉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동환봉사』의 연구는 李錫麟, 李東俊, 리기용, 이상익, 오석원, 김문준 등에 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주로 개혁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李錫麟은 『東還封事』를 바탕으로 군사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⁵⁾ 이는 임진왜란을 연구하려는 전제로 살핀 논문으로서 조선 군제의 일부분만을 살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군대에서 생기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중봉의 생각을 실학사상의 관점에서 살핀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李錫麟은 또 다른 그의 논문에서⁶⁾ 중봉의 개혁론을 군제 중심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를 더 심화하여 정치, 경제, 국방 등으로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병의 구성과 전개 등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중봉의 개혁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명나라에 질정관으로 다녀오면서 견문을 넓힌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봉의 생애와 의병

3) 「附錄卷4 遺事」, 526면.

4) 「檄誓辭告論文」, 432a면. “...勿畏敵兵 惟思將兵 惟念國難 惟思進擊 勿敢退步 惟殺大賊 勿貪小利 一乃心力 終克有勲 心力不一 有罰有悔 惟一義字 終始念之”

5) 李錫麟, 「重峯 趙蕙의 軍事改革에 對한 研究 -동환봉사를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1974.

6) 李錫麟, 「重峯 趙蕙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4.

활동, 개혁론 등을 망라하여 각 분야에 한정되었던 중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사회상을 재조명하고 애국적 지식인이 구상한 개혁의 방향과 관심의 초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 인하여 파악하는 사회상이라고 하기엔 연구의 깊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변인물 들에 대한 고찰은 있었으나 중봉의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한편 朴完圭⁷⁾는 重峯의 학문과 실천사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중봉의 학통과 학문의 성격을 살펴서 중봉의 학문을 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중봉의 학문 연원은 중국 고대의 성현에 두고 있고, 가까이로는 圃隱 정몽주로부터 靜菴과 퇴계, 이이에 걸친 孔孟과 程朱學의 道統情神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李東俊은 중봉의 학문성격을 경학중심과 經世的, 踐履之學的, 異端學排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⁸⁾ 특히 踐履之學的은 중봉의 학문이 단순한 理論學으로 그치지 않고 實質이 있고 實踐的이었다는 데서 踐履之學이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학중심의 성격과 이단학 배척의 성격을 유학 본래의 도학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조선조 성리학의 일반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학 중심과 이단학 배척이 조선조 성리학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기용은 『東還封事』를 통해 중봉의 개혁사상을 의병활동의 備倭之策에 대해서 고찰했다.⁹⁾ 중봉이 생존했던 16세기는 총체적 혼란으로 점철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학의 근본 목표인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인 『東還封事』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대비한 비왜지책을 주장하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중봉의 저술과 활동을 통해서 당시의 철저한 실천적 유학관을 확인할 수 있다. 리기용은 「팔조소」와 「십륙조소」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먼저 인용한 다음 조선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언급하여 그 특실의 이유를 갖춰 논하고, 고의와 절충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중봉의 개혁사상을 사회 신분제를 철폐하여 서얼이나 천민에게도

7) 朴完圭, 「重峯 趙憲 研究」, 延世大學教育大學院, 1982.

8) 李東俊, 「重峯 趙憲의 歷史意識과 國難對策」, 『同大論叢 제6집』, 1976.

9) 리기용, 「중봉 조헌의 개혁사상과 의병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 사상문화학회, 2002.

기회를 제공하고,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물과 진상, 부역과 조세 등의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경제 개혁을 꾀하는 한편, 국방의 강화와 왜군대비책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도 산술했다고 하였다. 중봉의 이러한 개혁사상과 실천사상은 조선조를 일관하는 성리학적 道統論의 연장선으로 의리의 문제를 중시하는 의리학과와 개혁과 실천에 역점을 둔 북학과를 중심으로 한 실학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상익¹⁰⁾은 중봉의 『東還封事』는 단순히 명의 제도를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것을 실천하려고 했음이 분명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오석원은 중봉의 도학적 의리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중봉의 역사적 위상을 살피는데 주력했다.¹¹⁾ 이를 위하여 먼저 중봉의 의리실천의 기반인 학문적 특성과 위기지학을 실천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의리사상의 비판정신에 의거하여 대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으로 제시된 그의 개혁사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생취의의 정신으로 국난에 임하여 의병을 일으켜 투쟁하다 순절한 중봉의 의병정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중봉의 학문은 무엇보다도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근본으로 하여 그 진수를 몸소 체득하여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중봉이 어떻게 공자 등의 학문을 계승하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어 김인규는 그의 논문 「重峯 趙憲 改革思想의 실학적 특성」에서¹²⁾ 조선조의 개혁사상가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알려진 중봉의 개혁사상의 실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실학’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文一平, 鄭寅普, 崔南善 등의 민족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인규는 실학에 대한 개념규정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고 보고 그중에서 천관우¹³⁾의 개념을 따랐다. 천관우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인 실학이 성리학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한 역사현상을 지칭하는

10) 이상익, 「東還封事를 통해 본 重峯 趙憲의 改革思想」,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11) 오석원, 「중봉 조헌의 의리사상」, 동양철학연구회, 2004.

12) 김인규, 「重峯 趙憲 改革思想의 실학적 특성」, 동양 철학 연구회, 2005.

13) 千寬宇, 「柳馨遠-새 학풍의 선구자」, 『韓國의 人間像』, 신구문화사.

개념으로 인정했다. 그러므로 김인규는 천관우의 학설을 좇아 실학을 시대의 산물로 보고 17세기 중엽 礪溪 柳馨遠부터 19세기 말엽 崔漢綺에 이르기까지를 실학의 시기라고 보았으며 반계나 성호 이익 등 실학파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인규는 율곡이나 중봉은 이들 실학파처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의지와 대응양상이 철저하게 개혁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학파라고 부르기에 미흡한 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전의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중봉은 「萬言封事」나 『東還封事』라고 하는 상소문을 통해 개혁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봉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구체적 設施 등의 경제론은 후기의 실학사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영자는 율곡의 도학 사상과 중봉의 의리정신을 살펴보고 중봉의 실학과 의리정신은 율곡 도학의 계승이라고 말했다.¹⁴⁾ 중봉이 절의를 실천한 도학자로서의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인 율곡이 고학의 창시자로서 윤리적 실천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암을 존중하고, 회재 이언적을 출처의 의와 경제의 자질로 도학자로서 부족하다 여긴 도학사상과 의리정신의 가르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황의동의 논문을 참고¹⁵⁾로 중봉의 학문은 단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이론적 학문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국가사회의 실제로 적용되고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학문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은 중봉이 올린 『東還封事』 등은 이지함, 성훈, 율곡 등의 학문을 전승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율곡은 중봉이 시세를 제대로 보고 헤아리지 못하고 강경한 언사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중봉의 학문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중봉의 강직성을 잘 지적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봉이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였다는 기초 위에서 더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김문준은 그의 논문에서¹⁶⁾ 당대 조선 도학자들의 현실인식과 대처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았다. 그 근거로 첫째, 중봉이 성

14) 이영자, 「栗谷의 道學思想과 重峯의 義理精神」, 『철학연구』97권, 대한철학회, 2006.

15) 황의동, 「율곡과 중봉의 도학정신」, 충남대학 유학연구소, 2012.

16) 김문준, 「중봉 조헌의 의리정신과 무실정신」, 한국 사상문화학회, 2007.

리학과 사림정신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 도통을 중시하고 문묘를 개정하자는 점을 들었으며 셋째,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여 지도층의 개혁과 양민정책을 바탕으로 무도한 힘에 항거하여 인도주의 정신과 경제사상을 펼쳤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봉이 의병을 일으켜 선비의 反正精神을 실천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문준은 중봉의 의리사상이 제자 安邦俊을 비롯하여 淸陰 金尙憲, 尤庵 宋時烈 등 도학과로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중봉의 諡狀이나 神道碑銘, 行狀 등 중봉을 기리는 글을 지은 이들이 모두 조선도학파의 정맥을 이은 선비들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김문준은 중봉의 사상과 실천은 당대 대표적인 道學派 사림의 애국 애민의 전반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봉의 개혁사상과 중국을 배우자는 사상은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을 주장하던 실학과와 北學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 김문준은 「重峯 趙憲과 700 義士의 民族精神史的 意義」에서¹⁷⁾ 중봉은 孔孟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자학에 전심하였고 주자의 사상과 경제방법을 당시 조선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매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봉은 도덕, 의리와 경제를 일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修養과 濟民을 실현하기 위하여 時弊를 개혁하고 倭侵에 대비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았다. 특히 700 義士와 중봉은 인간 세상이 인도주의가 유린되는 시대를 당하여 국가를 구했으며, 국가 존망의 위기와 道의 존망을 같은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道의 수호를 위해 순국 순도하였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강렬한 저항정신은 영원한 민족정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의 순국정신은 인의에 기초하여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인도정신을 발휘한 것이므로 중봉과 義士들의 정신은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정신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朱榮成은 그의 논문에서¹⁸⁾ 지금까지의 중봉에 대한 연구는 개혁사상가로서의 실학사상과 의병장으로서의 의리사상 중 어느 일면을 부각시켜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중봉을 개혁사상가로서 면모와 의병장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의 공통기반에서 합치시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17) 김문준, 「중봉 조헌과 700 의사의 민족정신사적 의의」, 한국 사상문화학회, 2011.

18) 朱榮成, 「重峯 趙憲의 實踐哲學 研究」, 成均館大學院, 2008.

서 증봉이 도학자로서 양 측면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기반을 학문에서 찾고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주영성은 증봉 철학의 형성에서 師承관계를 살펴 증봉의 학문이 연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살폈다. 학문하는 의미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이는 스승인 율곡의 학문은 다만 독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용처사에 있음을 강조한 것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사회개혁론으로 나타나고 사회개혁론 역시 율곡의 개혁론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증봉의 개혁론은 주로 『東還封事』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는 『東還封事』에 보이는 증봉의 사회개혁론이 율곡의 사회개혁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제도나 중국의 황제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류승국¹⁹⁾은 증봉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춘추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춘추는 진정한 의미의 人道精神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관용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시에 불의와 부정에 반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항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춘추정신의 양면성 즉 하나는 仁, 하나는 義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류승국은 증봉이 仁道와 正義를 기본으로 倭의 무도한 침략에 항거하고자 하였던 것이 춘추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류승국은 이러한 증봉의 개혁사상과 의리사상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를 위한 충절과 대외적 항쟁의식은 선비의 표본과 민족의 사표로 존숭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구체적 시책 등의 사회개혁론은 후기 실학사상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崔英成²⁰⁾은 증봉의 의리정신과 실천정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증봉은 ‘의리사상과 실천정신’의 표본이며 도학과 절의가 둘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준 眞儒로 평가했다. 나라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증봉의 살신성인의 애국정신은 그의 도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증봉은 정암 조광조로부터 내려오는 조선의 도학정신이 퇴계 이황을 거쳐 율곡 이이에게 계승되었음을

19) 류승국, 「춘추정신과 주체성」,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98.

20) 최영성, 「重峯 趙憲의 義理思想과 實踐精神」,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강조하고 이 도학정신의 계승을 중봉의 임무로 삼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사 상사에서 중봉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중봉이 남긴 도학에 대한 학술적 저술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諸家の 記述 등을 참조하여 도학자로서의 중봉의 면모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하준²¹⁾은 중봉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시문학을 살펴보았다. 그는 「抗議新篇」을 통해서 중봉의 학문과 사상을 살폈는데 다른 작품들을 배제하고 「抗議新篇」으로 국한하여 살핀 점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중봉의 시는 그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역사의식에서 우리나라와 당대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심성의 세계와 자연을 예찬하는 시도 있었지만, 시대의 실상을 담고 있는 우국충정의 시편들이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보면 중봉의 實踐之學은 그의 삶과 학문뿐만 아니라 시의 세계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익은 『동환봉사』가 위로는 주자와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실학(북학) 사상의 연원이 되는 포괄적인 국정개혁안을 담고 있는 봉사라고 하였다.²²⁾ 주자의 「戊申封事」와 율곡의 「萬言封事」를 가져와 서로 비교하면서 주된 개혁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중봉 개혁사상의 지향점을 명분과 기강의 확립과 君·臣·民의 感應, 례속의 배양과 실용성과 합리성 그리고 애민과 本固邦寧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논리를 폈다. 어떤 개혁안이 의미 있고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을 표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정에 맞아야 할 것이다. 중봉의 경우 조선의 실정에 맞는 입장을 취했음은 물론이다. 중봉은 명의 선진문물이 우리의 실정에도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에서 명의 제도를 극진히 소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익은 중봉의 『동환봉사』가 명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닌 조선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것을 찾아 실천하자는 주장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주용은 그의 논문에서²³⁾ 16세기 義理學派의 公職者像에 관한 연구

21) 이하준, 「중봉 조현의 학문 사상과 시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22) 이상익, 「東還封事를 통해 본 重峯 趙憲의 改革思想」,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23) 이주용, 「16세기 義理學派의 公職者像에 관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4.

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 出仕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경륜을 펼쳤던 靜庵 趙光祖, 栗穀 李珣, 그리고 重峰 趙憲을 표본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그들의 사상과 학문적 경향을 다룬 경학론에 집중된 까닭에 이들이 관료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펼쳤던 공직자로서의 다양한 경륜을 분석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용의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국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가치이념 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6세기 의리학과의 공직자 상에서 오늘의 공직자들에게도 사표가 될 만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직자상을 집중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이상적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자는 의리학과 공직자상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이상적 공직자상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공직자상이며, 둘째는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셋째는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는 공직자상, 넷째는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지식인으로서의 공직자상, 다섯째는 공부를 통한 실천 지향적 공직자상, 마지막으로는 정의로운 공직자상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공평한 사회, 질서와 반목이 없는 소통과 화합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작금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과는 엄청난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관예우의 풍조가 만연해 있고, 정치인·법조인·기업인·교육자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은 군자나 현신, 선비정신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公道意識’을 가지고 ‘공평무사’와 ‘멸사봉공’을 지향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사회 지도층의 일원으로서 술선수범의 자세로 공동체의식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리의 실천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지현²⁴⁾은 그의 논문에서 중봉이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朝天日記』의 체제를 살피고 책으로 본 중국과 실제 중국의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24) 김지현, 「趙憲의 朝天日記에 대한 소고」, 온지학회, 2014.

인식하였는지 연구하였다. 명나라의 생활풍속에 대한 비판의식과 백성의 삶에 관심을 보인 점, 구체적 생활 묘사 등은 살펴서 조헌의 의식을 규명하려 하였다. 조헌의 주자학적 시각이 『조천일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喪事와 장례풍습, 관인들과 유생들의 탐욕스러움, 기복신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보았다. 백성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분, 즉 세금과 부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조헌이 사행했던 당시의 명나라는 향촌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고, 새로운 사회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향촌대책을 강구하던 시기였으며 향약도 이때 하나의 방편으로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도 이황과 이이의 향약에 대한 논의²⁵⁾가 있었으며 조헌의 올린 소에서도 향약에 대해 건의하고 있었음을 살폈다.

또한 김지현은 증봉이 주자학적 시선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명나라를 바라보고 세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앞선 시기보다 더 자세하게 명나라를 살폈고 이를 통하여 명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하였다.

이어 장안영은 그의 논문 「『동환봉사』에서 본 『朝天日記』의 특성연구」에서²⁶⁾ 『조천일기』의 내용과 『동환봉사』에 수록된 개혁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증봉이 명나라에 간 것은 단지 질정관 역할뿐만이 아니라 명나라에 가서 조선과 관련된 정치현실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에서 유교를 숭상하면서도 몸으로는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고 성리학의 근본인 명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관찰하여 조선에 성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동환봉사』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결과 보고서이고 『조천일기』는 『동환봉사』가 작성되기까지 어떠한 체험을 통해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기록물이란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이것은 증봉의 제자 安邦俊이 쓴 『동환봉사』의 발문²⁷⁾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안영은 허봉과 증봉의 일기 비교 논의에서 대부분 조헌은 주위의 정치와 자신의 느낌 등 감정적 묘사가 없다고 서술²⁸⁾된 것을 가져와서 조헌의

25) 윤인숙, 「16세기전반의 향약의 성격과 이해」, 『한국사상사학』 39집, 2011.

26) 장안영, 「東遷封事에서 본 朝天日記의 특성 연구」, 선문대학교, 2015년.

27) 안방준의 발문은 『동환봉사』의 뒤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발문'이라는 말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28) 한매, 「허봉 「조천기」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9.

사행은 성리학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우려는 목적의식을 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경치를 술회하기보다는 자연스레 관찰할 대상에 눈을 돌렸다고 하는 부분은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에서는 중봉의 학문과 개혁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중봉의 학문과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쓴 『朝天日記』는 『동환봉사』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봉의 『朝天日記』는 명나라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환봉사』는 명나라의 선진 문명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조명한 상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봉의 개혁사상은 『東還封事』 위주로 조명되어 왔다. 『東還封事』는 명나라의 선진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선에 실행하자는 개혁론이 아니다. 비록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이지만 중봉은 사행길에서 여러 폐단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때문에 중봉은 명의 문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취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조천일기』는 중국 사행 길에 쓴 것이고, 『동환봉사』는 중국을 다녀와서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의 형식으로 쓴 것이다. 둘 다 중국을 보거나 다녀와서 쓴 글이기는 하지만 사적인 글과 공적인 글이라는 형식적인 부분 외에도 중국을 바라보면 시선 자체가 다르다. 『동환봉사』에 나타나는 중국은 조선 혹은 유학자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국가로 그려졌지만 『조천일기』에서 보이는 중국은 많은 폐단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동환봉사』가 조선에 이상적인 유교적 국가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는 유학자의 충절을 담아 쓴 글이라고 한다면 『조천일기』는 16세기 명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교의 종주국인 명을 이상적인 국가로 제시하고 조선에서 본받아야 할 개혁적인 사상을 상소로 올리거나 올리려고 한 중봉의 사상을 『동환봉사』를 통해 드러다 보려고 한다. 또한 『동환봉사』에 드러난 중봉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동환봉사』와 『조천일기』의 의미와 차이에서는 16세기 명의 모습을 일부 분이나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중국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아래 놓여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실상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환봉사』 역시 『조천일기』를 근거로 삼아 저술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II. 본론

1. 조헌의 생애와 『동환봉사』의 역사적 배경

중봉이 살았던 16세기 후반기는 국내의 정세가 매우 복잡다단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기강이 해이해져 지배층의 착취와 압박이 가중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신음하던 때였다. 대외적으로 16세기 초엽 이래로 더욱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의 노략질이 도를 넘어 연해지방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²⁹⁾, 북방의 여진도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변방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다. 율곡은 당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의 세상 폐단을 모두 말하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란다. ... 몇 년이 못 가서 백성은 반드시 물고기처럼 물크러지고 흙더미처럼 무너질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의 민력을 헤아리면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평일에도 버티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만일 난리가 남북에서 일어난다면 질풍이 낙엽을 쓸어버리듯 할 것이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종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온다.”³⁰⁾

율곡의 후환의식은 국내의 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 백성의 안위 뿐 만 아니라 나라의 존폐까지 근심해야 할 정도로 국내

29) 주용성, 위의 논문, 18면.

30) 『栗穀全書』, 『東湖問答』,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78면. 今世之弊 若欲盡言 吾恐日力之不足也 不過數年 民必魚爛而土崩矣 抑有大可者焉 度今民力 如垂死之人 氣息奄奄 平日支持 亦不可保 脫有外警起於南北 則將必若疾風之掃落葉矣 百姓已矣 宗社何依, 言念及此 不覺慟哭也

외 정세가 혼란한 시기였다.

당시 조선은 이미 東西 朋黨이 시작되었다. 붕당정치는 당파간의 상호견제 속에서 공론에 의하여 정국을 이끌어 가는 진보된 정치형태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³¹⁾ 당파 간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政局 運營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건국 이래 여러 종류의 공신에 지급된 功臣田과 別賜田이 모두 세습되고 양반들에 의해 토지의 매입·겸병·개간 등으로 인한 면세전의 확대에 따라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생활이 곤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職田法이 폐지된 이후에는 관리들에 의한 토지 소유의 확대가 심해져 삼남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침탈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田稅 뿐만 아니라 특산물의 貢納이 큰 부담이었다. 이 공납은 규모뿐만 아니라 수납의 절차도 복잡하여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공물을 납부하는 防納制가 생겨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외에도 군역의 徭役化와 收布代役制를 발생, 환곡제도의 고리대금화 등으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³²⁾ 중봉은 당시 폐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정의 폐단이 시작되자 부역의 繁重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고, 代糧의 화근이 늘어남에 따라 군정이 날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역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상을 보살필 겨를이 없고 군졸들이 도망을 쳐 현재 호수도 오히려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교관을 선발하지 않아 학교가 삭막해졌으며, 공도가 밝혀지지 않아 송사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 행하여지지 않아 간교한 무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³³⁾

1582년(선조 15)에 보은현감으로 재직하였던 조현은 백성들을 곤궁하게 만든 국내정치를 개혁하고 왜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상소를 올렸다.³⁴⁾ 또 1586년(선조 19)에는 「辯師誣兼論學政疏」를 올려 이이와 성혼의 사상을 적극 옹호하면서, 당시 위정자들이 나라 일을 망치고 어진 인재를 배척한다고 공격하였다. 이어서, 1587년(선조 20)에 그는 또 다시 정치 폐단을 논하고 상소를 써서 충청감사 勸

31) 주용성, 위의 논문, 19면.

32)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2003, 23면.

33) 『擬上疏』, 230면. 人情之弊濫觴 而賦役不勝其繁重 代糧之患滋苦 而軍政日以發隳 賦役難支 而農桑之不暇顧 軍卒流亡 而見戶之猶難保 教官不擇 而學校索然 公道不明 而詞訟紛如 私辦不行 而奸猾滋起

34) 오석원, 위의 논문, 251면.

懲에게 주어 조정에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권징이 거부하자, 조현은 직접 상소문을 써서 네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모두 접수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현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 상소문이 「陳所懷仍辭職疏」이다.

대내적인 사정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583년에는 여진족 泥湯介가 廣源, 鐘城 등지의 藩胡와 반란을 일으킨 바 있고, 1585년에는 豐臣秀吉이 세력을 강화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남북에서 거대한 세력이 조선 침략을 계획하면서 힘을 집결시키고 있을 때에 조선은 이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때에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풍신수길의 사자를 보내 위협적인 언사로 조선의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강요하였다. 조정에서는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적에, 오직 중봉만이 倭의 형세와 국제적인 대국을 간파하여 위난 극복의 대책을 극력 상소하였다.³⁵⁾ 이러한 조현의 상소들은 그때마다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는 당연히 그에게 수많은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1572년(선조 5) 왕이 불공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간하다가 파면당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파면과 재등용, 그리고 귀양살이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는 특히 사육신의 표충, 선비의 규율, 백성들에 대한 수탈, 조세의 경감, 노비 소유의 제한, 녹봉제도의 정비 및 관료기구의 간소화, 청춘과부의 개가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시대를 앞선 혁신적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특히 조현은 1589년(선조 22)에 임진왜란을 단지 3년 앞둔 시점에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論時弊疏」를 올렸다. 이것이 이른바 ‘持斧上疏’이다. 자기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도끼로 목을 자를 것을 요구하는 그의 상소가 제출되자 당시의 집권층은 당황하여 그를 길주 영동역으로 서둘러 유배 보냈다.

이처럼 조현은 16세기말 사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개혁적 주장을 끊임없이 펴낸 진보적인 경제 사상가였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전개되자 과감히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끝내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조현이 제시한 진보적 철학은 반대자로부터 온갖 비방을 받았으며, 심지어

35) 주용성, 위의 논문, 18면.

보수적이던 선조로부터도 ‘奸鬼’라는 혹평까지 받았다.³⁶⁾ 그러나 그를 진실로 아끼는 후학들은 ‘유사 이래 처음 보는 진정한 선비(眞儒)’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千古無此)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³⁷⁾ 1754년(영조 30) 영의정에 추증, 文廟에 배향되고, 옥천의 表忠祠, 배천의 文會書院, 금산의 聖谷書院, 보은의 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중봉집』이 있고, 저서에 『동환봉사』 등이 있다.

2. 조헌의 중국행과 『동환봉사』

중봉은 1574년 (선조 7) 31세에 질정관으로 정사 朴希立, 서장관 許筭을 수행하여 명나라에 갔다. 질정관은 “사행단의 한 직책으로 존재했고, 문물, 제도, 전적 그리고 한자어의 음훈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중국의 조정이나 인사에게 질정하는 역할을 맡았다.”³⁸⁾

중봉은 중국에 다녀와서 임금에게 「팔조소」를 올렸다. 여기에서는 다소 장황한 감이 있지만 이 상소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³⁹⁾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은 얼마 전 서쪽으로 갈 때 황주의 역관에게서 『사성통해』를 빌려 보고 질정할 20 조항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옥하관에 이르러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고 통사를 통해 서만 질정을 하니 풀이해준 말들은 『사성통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은 마음속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두려워하던 중에 길에서 왕지 부라는 선비를 만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가 3가지 일을 간단하게 말하고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질정을 하러 온 것이 단지 이것뿐입니까. 이런 몇 가지라면 방술이나 하는 선비들을 빼고는 다 압니다. 그러나 굳이 듣고자 한다면 성인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玩物喪志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 같은 유학자들은 박학이나 공부하는 소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36) 이석린, 위의 논문, 1984, 19면.

37) 이석린, 위의 논문, 11면.

38) 김남이, 「조선전기 사(士)의 해외체험과 문명의식」, 『이화어문논집 32집』, 2014, 9면.

39) 중봉은 ‘서’ 또는 ‘서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해당하는 글을 올려놓았다.

다. 신은 이 말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祖宗朝에서 중국에 질정하기를 말지 않은 것이 어찌 중국 사람들이 소중화라고 일컫고 실로 예의를 밝히고 나라의 객사를 모화관 태평관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꼭 명철하신 임금님과 성스러운 황제의 아주 공정하고 지극한 제도와 오랜 치한의 법술을 밝혀서 이 땅의 백성을 태평한 지경에 두고자 한 것이지 중국 사람들에게 사랑하여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먼 길의 보잘 것 없는 병졸을 힘들게 하더라도 오늘날의 선정을 듣고 장차 폐단을 없애고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⁴⁰⁾

우리는 여기에서 중봉이 질정하려 했던 것이 주로 한자어의 음훈에 관한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사성통해』를 통하여 질문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사성통해』는 申叔舟가 편찬한 『四聲通考』를 증보한 것으로 종종 때 崔世珍이 편찬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정할 내용들은 字學에 해당하며, 이것은 유학자들에게 있어 나라를 경영하는 학문 즉 대학이 아니라 ‘玩物喪志’나 ‘박학 공부나 하는 소인들의 학문’ 즉 ‘소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중봉은 이것을 매우 수치스러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환봉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질정관 조헌의 본래의 과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동환봉사』는 중봉의 사행 본래 목적에서 약간은 빗나간 업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김남이는 중봉이 “질정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의 문물제도 중에서 조선에서 적용할 것들을 정리한 『질정록』을 따로 만들어 올렸고 이것이 『동환봉사』라는 이름으로 전한다.”고 한 바 있다.⁴¹⁾

그러나 이 주장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서술에 따르면 중봉은 질정관으로서 임무 즉 ‘한자어의 음훈에 대한 질정’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문물제도 중에서 조선에서 적용할 것들을 『질정록』을 묶어 올렸다는 뜻이다. 『질정록』은 질정관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고 올리는 보고

40)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184면. 臣頃於西行之時 借得四聲通解於黃州譯官 已知質正事二十條之意 至玉河館 不能出入 只令通事因人請質 則所釋之言 不外乎四聲通解 臣竊愧素餐 而無補於國家 方以爲懼 道遇士人王之符 舉以質之 則略說三事而哂之曰 質正之來 只爲此事乎 若此數物 除是方術之士 乃能盡知 而必欲強聞 則在聖門爲玩物喪志 於吾儒爲博學小人 因思祖宗之朝 所以必遣質正而不已者 豈非以華人之指爲小中華者 實以能明禮義 而國家之名館 以慕華太平者 必欲詳究夫明王聖帝大公至正之制 長治久安之術 以指一區之民於太平之域也 非爲外誇乎華人之瞻視而設也 故寧勞駟路之殘卒 而冀聞斯今之善政 將大爲祛弊興化之本乎

41) 김남이, 앞의 글. 13면.

서이다. 따라서 ‘질정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의 문물제도 중에서 조선에서 적용할 것들을 정리한 것이 『질정록』일 수는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정관이 작성하여 올려야 하는 보고서와는 다른 보고서를 『질정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올렸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질정록』과 『동환봉사』는 같은 책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질정록』을 『동환봉사』와 동일한 것으로 본 오류에서 나온 결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래의 임무에 어긋난 과제이기는 하였으나 중봉은 충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동환봉사』를 저술하였다.

돌아보건대 미친한 신은 식견은 짧고 생각은 얕으며 재주는 엉성하고 말은 졸렬하니 비리한 말들이 성명의 들으심을 어렵게 하고 더럽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 영평에서 공마가 죽은 것을 보았는데 그 말이 머리를 동쪽으로 하였습니니다. 통사에게 물었더니 ‘매번 보아도 우리나라의 말들은 죽을 때는 머리를 반드시 동쪽으로 합니다.’ 하였습니니다. 대저 말도 근본을 잊지 않는데 신이 말보다도 못하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히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치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한 것을 참람하나마 논의하여 삼가 가려 쓸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았습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데 성명께서는 유의하여 주십시오.⁴²⁾

인용한 글은 ‘首丘初心’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수구초심’은 보통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태어난 방향으로 한다는 뜻이다. 중봉은 이 단어를 그가 여행길에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뜨거운 애군충정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치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한 것들’ 8개조로 정리하여 자신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동환봉사』는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와 「擬上十六條疏」⁴³⁾로 구성되어 있다.

신이 가만히 중국의 일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니 제도는 같으나 행해지는 규모가 어떤 것은 상세하고 어떤 것은 간략함에서 같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번거롭고 어떤 것

42) 위와 같은 곳. 顧以微臣 識短慮淺 才疎言拙 固知鄙俚之辭 難溷聖明之聽 而道見貢馬之死于永平者 猶東其首 問之通事則曰 每見吾地方之馬 死必東首云 夫馬不忘本 而臣不如馬臣之所深恥也 故敢以耳目之所聞見而關於治道者 僭議其我國之所未盡善者 恭備用中之擇 伏願聖明之留意焉

43) 이하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는 「팔조소」, 「擬上十六條疏」는 「십륙조소」로 약칭한다.

은 요약되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상세하고 요약된 것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간략하고 번거롭다는 것은 구차함을 좇고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이니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재산이 무너지고 근본이 상하며 백성이 흩어지고 나라가 위태하게 되는 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삼가 일을 하는데 절실한 것을 주절주절 아뢰었고, 다시 근본에 관계되는 것을 열거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미친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평심으로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성인 통치의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⁴⁾

이것은 「십륙조소」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중봉은 「팔조소」가 ‘일을 하는데 절실한 것’을 말한 것이고 「십륙조소」는 ‘근본에 관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봉 조선생은 질정관으로 연경에 가서 중국의 문물과 제도의 성함을 자세히 살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받아 시행해보고 싶어 하였다. 돌아온 뒤 (선생은) 두 편의 상소를 초하셨으니 사무에 절실한 것 8조, 근본에 관계된 것 16조였다. 선생은 먼저 8조소와 질정록 한 편을 올리며 우리나라는 마땅히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선왕께서는 ‘(우리나라는 명나라에서) 수천 수백 리 밖에 있으니 풍속이 다르다. 만일 풍기와 습속이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본받아 행하려고 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뿐이고 일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비답을 내리셨다. 선생은 말이 쓰이지 않을 것을 알고 다음 16조소는 올리지 않았으나 다행히 유고는 남아 있다.⁴⁵⁾

이 글은 『동환봉사』에 실려 있는 두 편의 상소문 중에서 「십륙조소」는 중봉이 써놓기는 했지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8조’와 ‘16조’는 모두가 유학 또는 유학적 통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항들이다. ‘사무에 절실한 것’과 ‘근본에 관계된 것’을 조목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팔조소」는 중봉이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치道’에 관한 것을 정리하여 조선

44) 「擬上十六條疏」, 201면. 臣竊觀中朝之事 而較之我國 文軌宜同 而見行規模 或有詳略之不同者 或有煩約之異宜者 詳而約者 文明富庶之所在 略而煩者 不惟因苟踵訛之可恥 而財匱根傷 民散國危之憂 正在于此 臣謹以切於事務者 濫陳於前 而復以關於根本者 開列於右 伏願聖明 勿以謂狂妄之言 而平心徐察 則不無少補於聖治之萬一矣

45) 安邦俊, 「東還封事跋」, 224면. 重峯趙先生 以質正官赴京 諦觀中朝文物制度之盛 意欲施效於東方 及其還也 草疏兩章 切於事務者八條 關於根本者十六條 先生先上八條疏及質正錄一篇 以爲我國當一遵明制 先王批曰 千百里外 風俗不同 若不揆風氣習俗之殊 而強欲效行之 則徒爲驚駭之歸 而事有所不諧矣 於是 先生知言不用 不敢更上後十六條疏 而今其遺稿 猶幸尚存

에서 도입해야 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상소문을 읽어보면 중봉이 「팔조소」에서 말하는 치도는 주로 현 시점에서 시행해야 하는 일에 관계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예로 ‘8조’ 중에서 첫째 조인 ‘성묘배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자를 추송하는 문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시호가 없던 공자를 시호를 달아 봉한 것은 한 평帝 때 王莽이었다. 그는 공자를 ‘褒成宣尼公’이라 했고, 이후 당 玄宗은 ‘文宣王’으로 시호를 내렸다. 또 안자 이하의 제자들도 각각 公, 侯, 伯 으로 추존하였다. 명 嘉靖 10년 공자를 追崇한 시호 ‘文宣王’을 ‘至聖先師孔子之位’로 고쳤다. 또 안자 이하 제자들의 追尊한 작명도 고치고, 위패도 크기와 색깔을 각각 구분하여 제작하여 모셨다. 이것은 태학사 程孚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경은 공자를 문선왕으로 추송한 것은 이른바 “君君臣臣 父父子子”의 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거짓으로 성인을 높임으로써 천하를 속이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중봉은 이처럼 명에서는 잘못된 추송을 바로잡았으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오랫동안의 누습에 젖어 있으니 마땅히 논의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팔조소」에서는 명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즉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제도를 서술하고 이와 다른 조선의 실상을 말하면서 ‘논의해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중봉이 말하는 ‘사무에 절실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십록조소」에서 말하고 있는 ‘16조’는 주로 목전의 일이 아닌 대원칙이다. 그중에서 ‘格天之誠’은 임금의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닿도록 해야 한다는 뜻인데, 중봉은 이 문제를 가뭇이 들었을 때 중국 황제가 정성을 다하여 하늘을 감동시킨 예를 들고, 덧붙여 세종대왕의 사례를 든 다음 “어리석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지만 전하께서도 재앙을 만나서 수양하고 반성하시는 것을 과연 이와 같이 하십니까?”⁴⁷⁾ 하고 임금에게 묻는다. 중봉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격천지성’을 마친다.

신은 없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수양하고 반성하는 도를 다하여 하늘을 감동하

46) 「팔조소」, 184-185면.

47) 「십록조소」, 201면. 臣愚未審 殿下之所以遇災修省者 果若是乎

게 하고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근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외의 여러 관리를 신칙하여 자신에게는 겸약하고 백성을 위해 힘쓰는 정사를 하는데 있어 한결같이 실질에 힘쓰며 겉치레를 숭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백성이 얼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하늘도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⁴⁸⁾

이렇게 본다면 중봉이 말하는 ‘근본에 관계된 것’은 바로 대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봉은 「십륙조소」의 16조 말미에 위와 같은 맺는말을 두어 임금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중봉이 생각하는 ‘근본에 관계되는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정이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팔조소」건 「십륙조소」건 『동환봉사』에 실려 있는 글은 모두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근본에 관계된 것’이든 ‘사무에 절실한 것’이든 어느 것이나 임금이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팔조소」와 「십륙조소」는 그 내용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3. 『동환봉사』의 세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환봉사』는 중봉이 중화의 나라 명에 가서 명의 여러 문물제도를 보고 이를 본받아 조선의 국정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임금님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동환봉사』는 「팔조소」와 「십륙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십륙조소」는 임금에게 올리지 않고 유고로 전하다가 『동환봉사』에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십륙조소」는 중봉이 근본이라고 생각한 군주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올려진 「팔조소」와 그 무게가 다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팔조소」와 「십륙조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환봉사』의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8) 「십륙조소」, 202면. 臣伏願 殿下先盡修省之道 以爲格天感人之本 而申飭內外庶官 其於約己勤民之政 一務其實 而不尚虛文 則庶乎民不凍餒 而天不憐怒矣

중봉은 「팔조소」에서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면서 조선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8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중국을 살피면서 건의를 하였다. 이 8개의 조항은 중봉이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살피는 틀이자 조선의 국정 개혁의 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聖廟配享之制
內外庶官之制
貴賤衣冠之制
食品宴飲之制
士夫揖讓之禮
師生相接之禮
鄉閭習俗之美
軍師紀律之嚴

그리고 ‘16조’는 다음과 같다.

格天之誠
追本之孝
陵寢之制
祭祀之禮
經筵之規
視朝之儀
聽言之道
取人之方
飲食之節
餼廩之稱
生息之繁
士卒之選
操鍊之勤

城臺之固
黜陟之明
命令之嚴

이제 이들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가 이념
- 2) 군주의 자세
- 3) 의례와 경제
- 4) 관인의 태도
- 5) 士民의 기풍
- 6) 국방

필자가 보기에 중봉은 富國強兵論者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점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든 ‘관인의 자세’든 ‘사민의 기풍’이든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주의 자세’와 ‘관인의 자세’ ‘사민의 기풍’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떼어서 논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위와 같이 분류를 하여 『동환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 이념

조선에서 국가 이념은 당연히 유교 이념이다. 중봉은 이것을 두 편의 상소문에서 제일 먼저 논하였는데 그중에서 「팔조소」의 ‘성묘배향지제’에서는 이념의 현창에 대하여 말하고, 「십륙조소」의 ‘격천지성’과 ‘추본지효’에서는 이념의 실천 덕목으로 군주에게 충과 효를 실천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팔조소」의 처음에서 중봉은 성묘에서의 위패 배향을 거론하였다. 성묘는 공자의 사당 즉 文廟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성묘배향지제’는 공자와 그밖에 문묘에

배향된 사람들의 위패를 만들고 배열하는 데 대한 규정이다. 이것은 유학자 중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유학 이데올로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중봉이 북경에 가서 성묘의 제도를 살핀 것은 왕명 즉 ‘위패의 치수를 고사하여 아뢰라는 교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廟額의 이름에서부터 위패의 치수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선에서도 명나라의 제도에 따라 고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봉은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제도를 답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대개 그 사람을 받드는 것은 그 도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임금은 다만 겉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학자에게 보일 뿐 성현의 말씀은 능히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일은 적고 어지러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⁴⁹⁾

중봉이 성묘배향의 제도에 주목하는 것은 도를 쓰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이 공자를 받드는 것은 공자의 도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중봉은 그러면서도 겉으로만 사람을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지금의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겉으로만 성인을 숭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 만의 숭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중봉은 중국의 배향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에서 성묘에 배향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배향의 정당성 여부를 따진다. 公伯寮는 ‘몸은 성인의 문에서 놀면서 오히려 부자의 도를 해치려 했고’, 荀況은 ‘인성이 악한 것을 주장하고 子思와 맹자가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하였’기 때문에 성묘에 배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봉은 이처럼 중국에서 배향을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戴聖, 賈逵, 馬融, 何休, 王弼, 王肅, 杜預, 吳澄 등도 ‘유학의 열에서 배척되어야 하며 많은 선비들에게 표장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중봉은 이들이 ‘貞觀 元豐 연간에 참다운 선비가 없어서 잘 가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향이 되었다고 하였다.

49) 「팔조소」, 185면. 蓋其尊人者 將以用其道也 世之人君 徒爲外貌之敬 以示學者 而不能躬行聖賢之言 故古今天下 治少而亂多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양명학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이다.⁵⁰⁾ 그는 육구연에 대하여 ‘오직 頓悟’에만 힘써 이미 주자가 그 해를 걱정하였으나 그 학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사람들의 침혹이 더욱 심하여 온 세상이 禪學에 돌아가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중봉은 육구연이나 왕수인 같은 사람을 종사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는 “위로는 조정을 그르치고 아래로는 斯學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양명학에 부정적⁵¹⁾인 것은 보편적이었다 할 것이지만 중봉도 벌써 이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봉은 金宏弼, 趙光祖, 李彦迪, 李滉 등은 배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은 없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4현을 포장하시고 종사에 배열하십시오. 그분들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들의 말씀을 반드시 쓰시되 그들이 말씀드린 것을 모두 취하여 날마다 앞에 놓고 성치에 도움이 되게 하시기를 4현이 임금님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추장하시어 온 세상의 선비들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을 바를 알게 하면 포승과 향용 두가지 의가 다하게 되어 문왕 같은 성인이 세상에 나와야 나타날 자들이 울연히 평범한 백성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⁵²⁾

중봉은 이들 4현의 업적에 대하여 김굉필은 처음으로 도학을 일으켜 옛것을 잇고 앞의 것을 열었으며, 조광조는 그 뒤를 이어 사도를 밝혀 세상을 건지고 사람들을 착하게 한 공이 있으며, 이언적은 도를 본받기를 순독하게 하여 기울어지려 하는 것을 부지한 공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황은 ‘동유를 집대성하고 주자의 적통을 이어받아 벼슬에 나가가서는 임금을 옳은 도리로 인도한 정성이 章疏 가운데 간절하게 나타나 있으며 물러가서는 인재들을 가르치는 뜻이 강론할 때 간절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리하여 착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景慕하였으며 악한 사람도 멀리서 그 풍모를 우러러 보고 스스로 몸을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⁵³⁾

50) 리기용, 앞의 논문, 232면.

51) 장안영, 위의 논문, 150면.

52) 『팔조소』, 187면. 臣伏願 殿下亟獎四賢 列于從祀 不徒尊其人 而又必用其言 盡取其所當啓沃之說 而日陳于前 以資聖治 如四賢之親達于冕旒 而又推其餘 使八方士子知所矜式 則庶乎褒崇嚮用 兩盡其義 而待文王而興者 蔚起乎凡民矣

53) 『팔조소』, 187면.

중봉은 ‘대개 사슴의 추세는 모두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문묘에 배향을 하는 것이 이 땅 선비들의 사풍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묘의 서쪽 빈 땅에 啓聖祠를 짓고 제사를 지낼 것을 주장하였다.

배향의 문제가 실무적인 문제라면 「십록조소」의 ‘격천지성’과 ‘추효지본’은 그와는 성격이 다르다. ‘격천지성’과 ‘추본지효’는 忠孝라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다.

신이 엿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수양하고 반성하시는 도를 다하시어 하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격케 하는 근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외의 서관을 신칙하여 자신을 검약하고 백성을 위해 힘쓰는 정사에 한결같이 그 실질에 힘쓰며 겉치레를 숭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백성이 얼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하늘도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⁵⁴⁾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중봉이 말하는 ‘격천지성’의 뜻은 ‘하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격케 하는’ 정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忠’이다. 임금에게 군주에 대한 충성은 해당이 없다. ‘자신을 다하는(盡己)’의 충을 해야 할 뿐이다. 그가 ‘충’ 대신에 ‘격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충과 함께 중봉이 건의한 것은 ‘효’이다. 그는 군주가 정성으로 효도를 하면 그 효험이 당년에 효도를 일으킬 뿐 아니라 또한 만대까지 선량한 자손이 있게 할 것⁵⁵⁾이라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가히 효도의 종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주의 자세

『동환봉사』는 군주에게 건의하는 글이다. 따라서 『동환봉사』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은 군주에게로 귀일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신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군주에게만 요구되는 자세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봉이 군

54) 「십록조소」, 202면. 臣伏願殿下先盡修省之道 以爲格天感人之本 而申飭內外庶官 其於約己勤民之政 一務其實 而不尚虛文 則庶乎民不凍餒 而天不憐怒

55) 「십록조소」, 202면. 伏願自今以後 因太祖英皇之事 而益信聖德之不孤 示文子文孫之法 而永開誠孝之不匱 則孝理之效 不獨興孝於當年 而抑且錫類於萬世矣

주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경연에서의 공부와 조정에서 조회를 하고 간언을 들으며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에게만 관계되는 일이다. 그가 군주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경연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이처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성덕의 진보가 어찌 그 끝이 있겠으며 태평한 치세는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⁵⁶⁾

여기에서 ‘이처럼’이라고 한 것은 중국의 황제가 경연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⁵⁷⁾ 경연이 공부하는 것이라면 조회에서 정사를 보는 것은 공부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는 조회가 서로 얼굴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할 것을 건의하였다.⁵⁸⁾

중봉은 관리의 임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옳지 못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해는 백성들에게 미치고 화는 국가에 과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올바르게 못한 인재를 천거하지 않고 위에서도 사의로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번 쓰면 오래도록 탄핵이나 논박되지 않아야 하니 구재삼고를 거친 뒤에야 출척을 정해야 한다.⁵⁹⁾ 임용은 신중해야 하지만 새로 제수된 사람이 목민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속히 의논하여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 폐해는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간다.⁶⁰⁾

관리 임면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십록조소」 중에서 ‘취인지방’은 인재 등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중봉은 파격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서얼과 재가녀 소생의 금고를 풀 것을 주장하였다. 중봉이 보기에 옛날 삼국이 각각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쓰는 데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려 중엽부터 권신들이 나라 일을

56) 「십록조소」, 204면. 嗚呼 率是不懈 則聖德之進 曷有其極 而大平之治 指日可待矣

57) 「십록조소」, 205면.

58) 「십록조소」, 206면.

59) 「팔조소」, 188면. 誠以人才難得 而庶官之中 一或非人間之 則害流於生民 而禍及於國家 故下不敢以非才苟充 而上不敢以私意苟任 一被選授 永無劾駁之議 既到其任 又開久於其職 九載三考 乃定黜陟

60) 「팔조소」, 188면.

말아 보면서 초야에서 나온 인재가 그들의 권력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서얼이 과거보는 것을 폐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좁아져서 나라가 날로 쇠퇴하였다. 조선에 와서도 대신들은 자신들의 자손이 잘되기만을 원하고 인재를 잃는 근심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가한 자손들을 모두 금고하여 법전에 기록케 하였다는 것이다. 중봉은 그렇기 때문에 미천한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서둘러 등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¹⁾

중봉이 생각하기에 나라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는 凡民이라도 뛰어난 사람은 과거에 응하게 하고 서얼이라도 학식이 있는 자는 어린 아이를 가르치게 하며 과거를 통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온 사람이라도 식견이 있는 자는 모두 대관에 보하게 하는 등 사람은 재주를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⁶²⁾ 서얼뿐만이 아니다. 중봉은 심지어 노비와 천한 종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경대부가 자체의 스승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⁶³⁾ 인재 등용에서 신분에 구애받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중봉은 이렇게 발탁한 인재는 출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는 암매한 사람을 쫓아내고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기에 힘을 썼다고 하면서 서⁶⁴⁾ 바른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⁵⁾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나라 육지의 가르침이 좋다고 하면서 이 글의 실천 여부로 출척을 정하면 '수령된 자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백성이 그 살 곳을 얻을 자가 많을 것이요, 사신된 자도 천거하고 탄핵하는데 밝을 것이고 전관 역시 감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61) 「십록조소」, 208면. 昔三國雖小 所以各能保方隅者 以其用人之無間也 蓋自高麗中葉 權臣當國 將恐忠智之士 起自草茅 而有妨於世政 謀廢庶孽之科 而賢路漸狹 國日以衰 至於我朝 謀國大臣 祇爲私其子孫之計 而不及於萬世失人之憂 并與再嫁子孫而禁錮之 載錄於令典 雖以殿下之至公 其於揚側陋之事 尙未知爲急務也

62) 「십록조소」, 207-208면. 臣竊惟念 國家取人之制 凡民俊秀 皆許赴舉 庶孽有學者 俾教童蒙 公薦有識者 亦補臺官 人無棄才 而士得見用 所以興賢設教者 固已至矣

63) 「십록조소」, 208면. 頃有知書庶孽之無屬處者 必令定其軍保 夫以都城百萬家 讀書者雖眾 而句讀分明 可以訓蒙者 不滿十數 苟有樂於教誨者 則雖私奴賤仆 官贖其身 兼給其料 使卿大夫之子 納拜而請教 然後隆師尙德 庶成美俗

64) 「십록조소」, 220면. 臣竊聞皇朝於黜幽陟明之政 務從其實

65) 「십록조소」, 220면. 孔子對哀公之問曰 舉直錯諸枉則民服 舉枉錯諸直則民不服 民若不服 國將何依

66) 「십록조소」, 220-221면. 臣愚竊念我 國之中 文教雖行 而務實者少 守令不知爲守令之法 監司巡撫不知辨守令之法 治民省方 一以臆見從事 故守令所作之事 多所闕略 而爲使臣爲銓衡者 常患於知人之難 如唐臣陸贄教禦史之言 簡切該具 守令以此治民 則庶有可觀之政 而使臣以此省方 則庶得觀人之法 故臣敢排寫於後以進 伏願殿下亦以此書 爲知人安民之規 大書特書 粘之丹扆 辭朝者書此

중봉이 생각하는 치국의 도에서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은 군주의 명령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⁷⁾ 그중에서 중봉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서가 해독이 불분명하여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오독을 하여 농간이 발생하는 것이었다.⁶⁸⁾ 중봉은 중국에서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중자⁶⁹⁾로 쓰는데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봉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임금이 명령하는 것을 신하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것이겠습니까. 장차 위의 덕을 선양해서 백성에게 이르도록 함입니다. 이제 반쪽자리라도 명령이 있으면 극히 어려운 일이라도 벽에 붙여놓고 시행하지 않음이 없는데 유독 성주가 백성을 걱정하시는 명령은 쉽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치워버리고 소홀히 하기를 이같이 하니 신이 앞에서 이른바 ‘삼강이 밝지 못하다’고 한 것이 여기에서 증험될 것입니다.⁷⁰⁾

3) 의례와 경제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의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중봉도 의례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봉은 의례를 논하면서 민폐와 경제적인 낭비가 생기는 것을 항상 염려하였다. 그에게 있어 의례와 경제는 표리의 관계였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이것은 왕실의 陵寢제도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중봉은 조선의 陵寢제

以授之 已往者書此以頒之 使其掛於任所 而常常仰思訓習 一年之後 審其行否 乃定黜陟 則爲守令者罔不盡心 而民得其所者必多 爲使臣者 庶明於舉劾 而銓官亦不蒙然矣

67) ‘명령이 엄해야 한다’는 것은 「16조」의 ‘명령지엄’에서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꼭 군주의 명만이 아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모든 명령에 해당한다.

68) 「십록조소」, 221-222면. 臣愚竊計 聖主臨禦以來 下教於中外者 莫非仁心仁聞之發 而上司書吏及監司營吏 乘醉亂書 半落半草 以傳於小各司州縣 則小各司州縣之吏 略書於膽錄 以示官員 爲官員者 專不致意 或見未終行 而急令歸藏曰 此是今世行不得之事也 或欲遵奉朝命者 問於下吏 則下吏恐其無利於己 飾辭以告曰 若行此命 則官司 難以扶持 爲官員者 點頭令退 則下吏投於收紙之筒 或未逾年 袖去而塗壁 哀彼無告之民 不知朝廷之有某命 橫斂之依舊而未敢言 苦役之如前而未敢訴 嗚呼 君令而臣行者 何謂也 將欲宣上德而致之於民也 今有當路之折簡 則雖極重難之事 無不粘壁施行 而獨於聖主憂民之命 易如反掌之事 而廢閣慢忽之如此 臣之前所謂三綱不明者 至此而可驗矣

69) ‘中字’는 ‘홍무정운체’를 말한다. 중봉은 「십록조소」, 221면에서 “凡朝廷有命 撫按總督奉申之言及邑守鎮將奉行之言 一不亂草 寫以中字 鋪城村店之間 無不明揭”이라고 하고 괄호 안에 “俱以洪武正韻體書之 點點畫畫 莫不楷正 雖縣鋪小吏 莫不有教也如是”라고 설명을 하였다.

70) 「십록조소」, 222면. 嗚呼 君令而臣行者 何謂也 將欲宣上德而致之於民也 今有當路之折簡 則雖極重難之事 無不粘壁施行 而獨於聖主憂民之命 易如反掌之事 而廢閣慢忽之如此 臣之前所謂三綱不明者 至此而可驗矣

도를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그는 능침제도를 말하면서 경제적 낭비와 민폐를 지적하였다. 특히 풍수설을 지나치게 믿어 국상이 나면 묘자리를 잡고 혈을 정하는 일을 한결같이 지관의 말만을 좇았다. 그래서 건원릉 옆에 좋은 혈이 많은데도 널리 양주, 고양, 광주, 여주 등지를 골라서 죽은 자에게는 머리가 옮겨지고 발을 잃어버리는 근심이 있게 하고 산 사람에게는 집을 부수고 전답을 빼앗는 서러움이 있게 하여 원망이 하늘에 닿고 국가에 미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⁷¹⁾

중봉은 능침 제도가 지나치게 낭비적으로 된 것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는 왕릉이 지금의 경상의 묘와 같았는데 공민왕 때 처음으로 石藏을 만들어서 석물이 커졌다. 국초에는 능침 제도를 고려 때의 것을 따랐으나 중종의 계비 윤씨의 능인 태릉과 명종의 능인 강릉을 만들 때 사치하고 커져서 석물을 옮길 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임금께 아뢰어 이를 제지시킨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⁷²⁾ 중봉은 이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도 불안하셨을 것입니다.”고 하였다.⁷³⁾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지난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이제부터는 만대에 이르기까지 恒式을 정하여 이를 금석에 새겨 先陵의 곁에 두고 수혈을 정하되 한결같이 인종대왕의 명과 같게 하십시오. 석장과 석물은 갑자기 없애기는 어려우나 창엽 당시보다 조금이라도 작게 하시면 성상의 효도가 무궁하고 겸덕이 한 나라나 명나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화담 서경덕도 일찍이 상소하여 말씀드리려 했으니 끝내 올리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그 소를 한번 가져다 살펴보신다면 신의 말이 그리 허망된 것이라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⁷⁴⁾

왕실의 능침 규모를 줄이라는 것은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봉은 과감하게 말하였다.

71) 「십록조소」, 203면. 臣竊慨念東方之俗 酷信風水 公卿士民 曾多感染 列聖之明 雖不爲其所欺 而及於大故 則嗣君方在亮陰之中 未有命戒 而荀兆點穴 一惟相地官之言 公卿輔相 不敢措辭於其間 故健元獻陵之旁 固多佳穴 而博擇於楊高廣驪之地 使死者 有遷頭失足之患 生者 有破家奪田之慟 而怨格穹蒼 以及於國家者 亦既聖明之所親覽也

72) 「십록조소」, 203면. 前朝舊王之陵 則不過如今卿相之墓 而恭潛始爲石藏 大其石物 國初雖因其制 齊厚二陵 不甚高大 至於泰康二陵 則極侈而大 其引重轉遠之際 畿輔之民 多有死傷者 而無人敢聞於恭默之中 以發如傷之念者

73) 위와 같은 곳. 祖宗在天之靈 亦所不安矣

74) 위와 같은 곳. 往事已矣 無可奈何 自今以後 至於萬世 永著恒式 刻之金石 止就先陵之旁 而定其壽穴 一如榮靖大王之命 石葬石物 雖難遽廢 而差小於創業之時 則聖孝無窮 而謙德不止於漢明矣 花潭徐敬德 曾已具疏言此 而不果上達 殿下試取其疏而垂覽焉 則臣言亦不爲妄矣

제사 예절에서도 중봉은 과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에서도 중봉은 명나라의 예를 먼저 들었다. 명나라는 영토가 커서 재물이 풍부하니 조상의 제사에 날마다 생뢰를 갖추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받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생전에 공양하는 것과 사후에 제사지내는 것은 그 방도가 다르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제사를 과하게 지내면 귀신이 歆饗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⁵⁾

관리의 횡포 또한 심각하다. 조선은 부고의 곡식은 날로 적어지고 백성의 가난도 전보다 더욱 심한데 제수 비용은 백관의 녹보다 많다. 궁민들은 한 줌을 모으고 한 뒷박을 빌어서 어렵게 本色을 갖추어 바치는데 서리들은 인정금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고 트집을 부린다. 힘없는 백성들은 月利金을 구하여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형편이다.⁷⁶⁾ 중봉은 “이를 본다면 조종의 하늘에 있는 혼령도 불안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효의 이치가 아니라고 하였다.⁷⁷⁾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성대에 과하게 제정된 규칙을 지켜 재물을 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해서 국사를 망치느니보다는 차라리 성왕의 중간 정도 되는 제도를 따라서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여 조종의 기업을 영구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주역』 ‘萃卦’ 六二에 ‘성의가 극진하여 제수가 간편하여 제사도 지낼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제사지내는 도는 정성으로 근본을 삼으므로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⁷⁸⁾

제사를 사치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도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위의 말은 예를 행하면서 중용을 따르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간 정도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어

75) 위와 같은 곳. 臣竊聞皇朝祭先之禮 止於九廟 陵寢有時節之祭 朔望之薦 奉先殿中 惟有新物 則薦之 而別無日奠之所雲 夫以天下之大 財物之富 雖日具牲牢 以象平生 而亦何所不足哉 誠以生之與死 養祭殊方 而黷於祭祀 反爲不欽故也

76) 「십록조소」, 204면. 且以目前之憂言之 則府庫之積 視往年日匱 生民之窮 比疇昔尤甚 而凡祭祀所供米麵之數費 多於百官之祿 蔬菜之辦 一出於窮民之力 視彼饑夫凍婦 龠收升貸 艱備本色以納 而吏要人情 百般阻當 (如山蔬家菜 便於採納者 或不賂吏 則指爲非市中之物色而斥之 市物獨非自山村而來者乎) 必求月利 以稱其欲 而歸家難辦 拊膺頓號之狀

77) 위와 같은 곳.

78) 「십록조소」, 204면. 臣之愚意 以爲與其守盛時之過規 而傷財害民 以債國事 曷若遵聖王之中制 而節用愛民 以永祖宗之基業乎 必不獲已..... 在易萃之六二曰 孚乃利用禴 言祭祀之道 以誠爲本 而利於用簡約也

쩌면 이는 중봉이 임금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인지도 모를 일이다.

의관 제도에서 중봉은 능침이나 제사에 비하여 경제적인 언급을 그리 많이 하지 않는다. 의관 제도가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오랑캐와의 구별을 위해서다. 공자가 ‘被髮左衽’을 말한 이래 중봉 뿐 아니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복식은 단순히 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화이의 구분의 절대적인 단서가 되었다. 의관 제도가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관 제도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연행 길에서 귀순한 오랑캐를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 모양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중봉은 이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오래된 습속이기는 하지만 이를 고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결코 예의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⁷⁹⁾ 반대로 그는 남녀의 의관을 오랑캐의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였다.⁸⁰⁾ 다시 말하면 중봉에게 있어 중국과 다른 것은 모두가 오랑캐의 풍속이며 따라서 고쳐야 하는 것이다.

명나라의 의관 제도를 따르는 것은 일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때로는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홍무 연간에 정했던 법규에 따르면 문관의 옷은 땅에까지의 거리가 1촌이고 무관의 옷은 땅까지 5촌이었다. 그리고 소매통(袂)은 문관은 9촌이고 무관은 겨우 주먹이 나갈 정도 밖에 안 되며 옷깃이 똑바른 것을 입었다. 이것은 활쏘기에 용이하도록 한 것인데⁸¹⁾ 지금은 비록 문무관의 제도가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애초에 활을 쏘는데 편리하도록 한 무관의 복장이 문관복처럼 변한 것이다. 이 변화의 결과는 보기에 위엄이 있게 그러나 활쏘기에는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봉은 그 정제하고 단엄한 형상은 마땅히 본받을 만하다고 하였다.⁸²⁾ 중봉은 나라의 의례에서 경제와 민생을 말할 만큼 매우 실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79) 「팔조소」, 190면. 臣路見向化髮子之婦 又見其進貢廻還之輩 我國童男及女人斂髮之容 不幸而近之 是雖習俗流傳之久 而於聖主一變至道之機 若又因循 則 必時*華史之筆 謂朝鮮爲冠帶之國乎 (*是의 오자로 보인다.)

80) 「팔조소」, 191면. 大抵中原衣冠之制 不惟簡約易備 而如今天下同文之日 如雲南貴州 距京師萬缺餘里 曾是椎髻侏離之域 而大小男女 一遵華制 況我箕邦 距京師不滿四千 實與五服諸侯無異 而男女衣冠 多有可羞者

81) 「팔조소」, 189면. 爲便於射也

82) 위와 같은 곳. 「팔조소」, 189면. 臣竊考洪武間 所定之規 文官之衣 距地一寸 武官之衣 距地五寸 袖濶俱一尺 袂口 文則九寸 而武則僅容出拳 穿衣撒直領 今雖文武同制 而其整齊端嚴之象 宜若可倣也

있었다. 그런 그가 이런 변화를 ‘마땅히 본받을 만’ 하다고 한 것이다.

이밖에도 복식은 화이의 구분 말고도 신분과 위계를 구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선비는 선비의 복식이 있으며 내시는 내시의 복식이 있고 어전 시위는 그들의 복식이 있다. 수령과 아전의 복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중봉은 의관 제도를 통하여 화이와 귀천의 구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³⁾

중봉은 의관 제도에서의 낭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신분에 따라 그에 맞는 모자를 써야 하는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갓을 쓰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비판하고 ‘중국의 풍속에 따라 吏와 士는 항상 갓을 쓰게 하고 서인은 모자를 쓰게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⁸⁴⁾

4) 관리의 태도

중봉의 절용론은 관리들의 일상생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식품연음지제’와 다음에 나오는 ‘사부읍양지례’에서 언급하는 것이다. 중봉이 보기에 ‘조선의 풍속은 오로지 음식을 푸짐하게 하고 술은 가득 채워 마시기를 일삼아 재물이 다해도 걱정을 모르고 백성이 곤궁해도 구원해 주는 것을 모른다. 임금이 명을 내려도 따를 줄을 모르며 물건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써서 끝없이 나라의 근본을 깎아 없앤다. 內司의 관리들은 집안에서도 풍성하게 먹고 가난한 선비들은 그렇게 못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까닭 없이 병가를 내고 직무에 나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동리에서는 앞을 헤아리지 않고 비용을 낭비함이 매우 심하다.’ 중봉은 이와 같은 세태를 나열하고 “아! 이것이 어떤 풍속이기에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⁸⁵⁾ 하고 개탄하였다.

83) 「팔조소」, 190면. 蓋守令冠帶聽事 則吏不敢不服其服 而我國外邑之吏 於守令冠帶之處 或戴深簷胡笠 或戴平笠 而俱無禮服 甚不如人形 平壤義州等處吏服 尙同各司之吏 他邑吏服 若令依此改之 則雖刀筆之賤 儼具禮服 而庶無怪癖之習矣

84) 위와 같은 곳. 190면.

85) 「팔조소」, 191면. 而我國之俗 專以豐饌崇飲爲務 財盡而不知憂 民窮而不知卹 上命而不知從 以暴殄天物 而斷傷國本者 罔有紀極 內司庶官 雖行家供 而豪奢之輩 盛備饌品 貧約之士 蓋不能及 或有無故呈病 而不勤職事者 里巷之間 不計遠慮 而靡費尤甚 嗚呼 此是何等風俗 而不用改之乎

‘연음지제’에서 중봉은 조선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물자의 낭비에 대하여 계속하여 탄식하였다. 중국의 관원들은 닭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감히 민간에서 함부로 거두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조종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몇 천 몇 만 가지인지 모른다. 그러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맹세하여 간소한 음식으로 정공을 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⁸⁶⁾

물자의 낭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의 기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변방의 장사들이 병사와 수사를 迎送하면서 鎭을 버리고 경계를 넘어가면서까지 과음을 하는 것이다.

중봉은 특히 음주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변방의 장사들은 더욱 술마시기를 숭상하여 이웃 지역에서 수수 및 병사 수사가 가고 올 적에는 환영 전송을 한다는 명목으로 소를 잡고 술을 빚으며 재화를 가지고 진을 버리고 경계를 넘어 가서 술에 잔을 띄워놓고 계속해서 몇 날을 마신다.⁸⁷⁾ 중원에서는 술의 화가 오히려 적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들은 욕심으로 몸을 망치는 것이니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는 가엾은 일이며 화근은 방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봉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술자리에서 마실 수 있는 잔 수까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이러한 시시콜콜한 지적과 제안은 중봉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봉이 절용 절약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아전들에게 녹봉을 줄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으로 서리 조례 전복으로부터 밖으로 아전 서원 사령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관을 떠날 수 없으니 그 괴로움이 막심한데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고 또한 공장이나 장사도 할 수 없어서 옷과 밥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자니 겨를이 없고 빌어먹자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속이고 술책을 써서

86) 「팔조소」, 192면. 嗚呼 中原庶官 一鷄一魚 不敢橫斂于民間 而我國爲官員者 以養口腹之故 而病及于祖宗之赤子 不知幾千幾萬 而可不君臣相誓 汲汲乎菲食而正供也哉

87) 「팔조소」, 192면. 而況邊方將士 尤多崇飲 於其鄰境守帥及兵水使之往還也 名爲迎送之例 而椎牛釀酒 載貨執寶 棄鎭越境 而浮觴倒觥 劇飲連日

88) 위와 같은 곳. 嗚呼 中原之地 酒禍猶少 而我國之人 崇酒夭死者 不可勝紀 雖彼以欲敗身 而在聖主躋世壽域之心 定所矜憫 而凡百禍源 不可不周防 一用華人之禮 刻定爵數 俾物縱醉以喪身 其他 非時非禮之宴 及與私行 飲過三爵者 一依酒誥之法 則庶無糜財病民妨政廢事之禍矣

백성을 험박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장부를 위조하여 재물을 도취하고 창고에 들어가 곡식
흙치는 등을 엄치를 불고하 하는 것입니다.⁸⁹⁾

중봉은 아전이나 서리들의 부정이 구조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라에서
녹봉은 주지 않고 자신들은 바빠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
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형벌을 엄히 하고 법을 무겁게 하여
그 폐단을 막으려 하면 온갖 간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길을 열어주
고 엄치를 가르쳐서 스스로 간계를 부리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⁹⁰⁾

이 경우 재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봉은 이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생각하
지 않았다. 그의 생각으로는 서리들이 급료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농간을 부
리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임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도둑맞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급료로 고루 나누어 주어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해치지
말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장⁹¹⁾이라 할
것이다.

중봉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급료를 줄 재원 마련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지금 급료를 받는 자 가운데 일 없이 먹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敎書 唱準의 일은 15
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30여 명이나 두어 세륙 월봉 일료가 다른 장인에 비하여 가장
많으니 다른 관청의 놀고먹는 먹는 자가 많음을 이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사에서 받
는 공물 작지 하는 값과 각도에서 관리가 속죄하는 배 등을 걷어 쌓아둔 것은 관원들이 친
구와 서로 즐기는 비용과 사무를 맡은 이서들이 도용하는 재물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공
물이니 만일 합하여 셈해서 그 부당한 허비를 절약하고 꼭 써야 할 자리에 쓴다면 모든 각
사에서 일을 맡은 이졸에게 주는 급료가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⁹²⁾

89) 「십록조소」, 211-212면. 而我國則內自書吏皂隸典仆 外至衙前書員使令等 日不離官 其苦莫甚
而了無一錢之所及 既不暇治農 又不能爲工爲商 而其衣其食 略無出處 作賊則不暇 丐乞則無閑 此
所以欺官弄術 怵民要貨 絕簿盜財 入倉偷粟 不顧廉恥而爲之者也

90) 「십록조소」, 212면. 若嚴刑重法 以杜其弊 則將不勝其奸計之百出矣 孰若開其衣食之源而敎以廉
恥 使之自不爲奸也哉

91) 주용성, 앞의 논문, 46면.

92) 「십록조소」, 212면. 方今受料之中 坐食者甚多 校書唱准之役 十五人可爲之事 而至設三十餘員
歲祿月俸日料 視諸匠最優 他司冗食之繁 舉此可知矣 且各司賈物作紙之價 及各道官吏刑贖之布 收
而藏之 不過爲官員親舊相悅之費 及掌務吏胥盜用之資而已 是亦公物也 若合而計之 節其不當費 而
用於當用之地 則庶司任事吏卒 不患其料之不足矣

중봉은 아전 서리에게 녹봉을 지급할 재원 마련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원들이 아침하는 무리가 그 앞에 차는 것을 좋아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3-4명의 서리에게 나누어 맡긴다. 이렇게 많아도 그들은 떠들기만 잘 했지 일은 못한다. 외읍 수령은 반드시 관속들이 뜰에 차기를 바라 아전이 많이 있어도 인원을 더 뽑는다. 그 결과 군인이 모자라게 되면 가난한 백성으로 충당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도망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⁹³⁾

이 시점에서는 중국과 같이 불필요한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과부족이 있으면 서로 교체해서 충원시키고 남은 사람은 모두 군에 배속시켜야한다.⁹⁴⁾ 일을 맡은 자의 흐름은 안으로는 공상을 절약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제거하여 급여를 고르게 하고 밖으로는 고을의 쓰임을 절약하고 비용과 소모를 헤아려 고르게 급여한다. 혹 간계를 부리고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변방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리하면 사람마다 일한 대가를 받고 살게 되고 국가의 용도가 매우 고르게 되며 관리들은 그 임무에 충실하여 공무가 또한 맑아질 것이다.⁹⁵⁾ 기타 환곡을 잘 관리하면 관청의 비용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등⁹⁶⁾ 중봉의 제안은 매우 치밀하면서도 현실성이 있다.

5) 土民의 기풍

여기에서의 ‘사민’은 아직 벼슬에 나가지 못한 선비와 백성을 포괄하는 말이

93) 「십록조소」, 212-213면. 以東方偏小之域 人物之蕃 不得擬於遼 薊一面 而內司庶官 深好便佞之滿前 一吏可辦之事 分屬於三四吏 祇益喧叫 而事實不治 出司則必求呵擁之塞路驅從 少處則到底興歎 而視事不屢 百弊滋興 外邑守令 必要官屬之盈庭 衙吏雖多 益選良民之子 以定日守 而軍有關額 則例充以貧殘之民 以致逃散

94) 위와 같은 곳. 嗚呼 奢僭之過而百事之誤如此 爲今之計 誠能以中朝之制 而先減其六曹吏卒之數 令京官不敢帶吏而行 庶司外邑 以次損之 刻定其額 如有此裕而彼缺者 遊移充定 止留任事者 餘悉配軍

95) 위와 같은 곳. 任事者之餽廩 內則約其上供 如祭祀之過禮者及禦用之不切者 除其冗費 如校書唱准等空食之須及作紙刑贖之布 而均給之 外則節其邑用 如逐日非禮之宴及私行幹求之物 量其費耗 費耗少而屯田多處 則以其所收而并用之 而均給之 使之各任其事 而或有作奸犯科者 乃移於邊境 則人食其事 而國用甚均 吏恪其任 而公務亦清矣

96) 「십록조소」, 212면.

다. 중봉이 보기에 조선의 선비들은 ‘몸은 학교에 적을 두었으나 반줄의 글도 읽지 못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사하는 의식도 없고 어린 아이들은 예절이 없거나 지나치다. 이들은 공부를 하여 과거에 합격을 하여도 예의와 사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⁹⁷⁾

향촌의 풍속도 문제가 많다. 「향려습속지미」에서 중봉이 말하고 있는 것은 향촌 백성들의 풍속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아래 백성을 가르쳐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중봉이 말하는 향촌의 아름다운 풍속에는 백성은 직접 나오지 않는다. 열성조께서 꾸준히 가르치고 주상이 새롭게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이루기에 힘써 마땅히 집마다 착한 사람이 있고 마을마다 온후한 풍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봉이 보기에 오늘날 조선의 향리의 풍속은 민심이 날로 척박해지고 강상의 도가 흔들리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이 효도할 줄 모르고, 형은 아우에게 우애를 갖지 못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지 못하며, 가장은 그 아내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는 가랑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이웃끼리 날마다 싸우고 친구끼리 속이고 서로 잘난 체한다. 집에서 품행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임금의 명을 거슬러 백성에게 학정을 하는 자가 안팎에 두루 있다.⁹⁸⁾

중봉은 이렇게 된 것은 임금의 교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자들이 혹 이르기를 ‘양민하는 정책을 먼저 하지 않고 한갓 백성을 다스리는 정책만 쓴다면 분잡하고 소란스러움만 더할 뿐 다스리는 데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인데 지금 양민하는 정책을 급급하게 의논하여 행하지 않을뿐더러 백성을 다스리는 정책도 역시 까마득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⁹⁹⁾

97) 「팔조소」, 194면. 我朝師儒之初坐講堂也 諸生止行再拜之禮 而正至無拜賀之節 朔望無謁聖之官 在泮儒生 但於朔日拜廟 而師生同拜之儀 則寂寥乎無聞 宗親始冠者及新中生進文武科者 雖有謁聖之禮 而無拜于大司成之規 童蒙幸有日講之徒 而類皆草草無序 僕僕過恭 而無排行揖讓之禮 外邑校官之受料者 皆徒費公廩 而不知有聖廟 學長之無料者 又何能責以禮教 是以名為儒業 而得中科舉者 猶不識禮讓之爲何事 託身校籍 而不讀半行者 能知遜弟之風乎

98) 「팔조소」, 195면. 我國之地 本以禮義之邦 加以列聖漸摩之教 重蒙主上惟新之政 歲歲命令之所發 惟化民成俗之是務 宜乎戶有善人 鄉有厚俗 而頃年以來 民心日漓 綱常之道 板蕩于世 父而不知教其子 子而不知孝其父 兄而大不友弟 弟而大不克恭于兄 夫不能制其婦 婦不能順其夫 爲鄰里者 雖是切親 而日以鬪狼爲事 爲朋友者 雖是達官 而日以狙詐相高 在家而不能修厥行 故事君而不能盡其職 方命而虐民者 遍於內外 以臣觀之 可謂臣不新 而子不子也

99) 「팔조소」, 195면. 議者或以爲不先養民之政 而徒舉導民之術 則只益紛擾 而無益於治 此言誠是矣

중봉은 ‘養民之政’과 ‘導民之術’을 구분하고 있다. 중봉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민’은 ‘政’이라 하고 ‘도민’은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양민’은 치지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도민’은 술책으로 백성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송 황제가 중원을 빼앗기고 남으로 애산에 닿았을 때, 이때는 멸망이 경각에 있었는데도 육수부는 오히려 「대학장구」를 써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권하여 읽도록 하였다. 멸망이 경각에 있어도 ‘親上死長之道’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우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육수부는 또 중봉은 ‘홀어지고 넘어지는 사이라도 임금을 가까이 하고 어른을 섬기는 도를 알지 못하면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⁰⁰⁾ 이것은 ‘양민지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봉은 이런 주장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고려도 보여준다. ‘이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동민을 모아 이것을 가르치게 한다. 음식을 장만해서 모임을 갖는 일은 풍년을 기다려 행하게 하면 폐단이 번거롭지 않아 백성들이 쉽게 따를 것이다. 그러면 무너지려는 윤리도 거의 다시 펼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박해진 풍속도 거의 순박하게 할 수 있다.¹⁰¹⁾

6) 국방

중봉은 국방에 대하여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팔조소」에서 국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군사기율지엄’ 한 조에 불과하지만 「십륙조소」의 16조 중에서 병사에 대한 것이 무려 6조에 이를 정도였다. 이것은 중봉이 국방이야말로 군주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증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今者養民之政 既不汲汲然議行 而導民之術 亦付相忘之域

100) 「팔조소」, 196면. 昔者宋帝之泊舟於崖山也 亡在呼吸之頃 而陸秀夫猶書大學章句 日與諸生勸講 誠以流離顛沛之際 人不知親上死長之道 則不可與一朝居故也

101) 위와 같은 곳. 況今聖明臨御 國家閑暇之時 巖廊之列 猶有望治之臣 草野之中 不無向善之士 已頒之書 若令奉行 使其勸講之方 略依中朝之制 守令教授 例於朔望謁聖之時 同對約正校生 而明諭其義 使之私會而教之 設食一事 年待豐年而乃行 則弊不煩而民易從 將敦之倫 庶可復絃 而已薄之俗 庶可還淳矣

중봉은 국방은 인구의 증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구의 증가는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들의 탐학이다. 중봉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핀다. 그가 본 중국은 압록강 이서에서부터 순천 즉 북경에 이르기까지 쓸 만한 땅은 다 경작을 하여 시골 마을에도 닭과 개 소리가 들리고 소와 말 돼지와 염소가 산과 들에서 마음대로 놀고 있으며 집집마다 자녀들이 다섯, 아홉씩 떼를 이루었다. 이런 형편은 중국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하였다. 중봉이 보기에 북쪽 들은 원래 불모지였는데 이와 같이 부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명나라의 조종들이 깊이 걱정하고 멀리 생각하여 방본을 굳게 하는 길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¹⁰²⁾

여기에 비하면 조선은 기름진 땅과 좋은 들이 황폐하여 풀이 무성하고 소와 말을 한 마리씩이라도 기르는 집에 열에 한 두 명도 없고 자녀를 두어 떼를 이룬 자 또한 심히 보기 드물다. 대자연이 만물을 내는데 조선만 특히 부족하게 했는가.¹⁰³⁾ 아니다. 관리들의 횡포로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고 이웃의 궤한 군사와 도망친 노비 때문에 연루되어 옥에 들어가 혹은 열흘 혹은 한 달이 되어도 오히려 석방되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락한 땅과 좋은 밭에서 길게 살아갈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도망갈 생각만 한다.¹⁰⁴⁾

중봉은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무릇 백성을 아끼고 키우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없고 생물의 근원을 또한 막아서 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대원칙을 제시하고¹⁰⁵⁾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딸이 장성하였는데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죄를 주고 일찍 과부가 되어 의지할 곳이 없

102) 「십륙조소」, 213면. 蓋以天朝祖宗 憂深慮遠 知邦本之固在於民安

103) 위와 같은 곳. 慨我東方 自兩界以及都門之外 膾原沃野 或有不耕之地 昔日民居之處 今鞠爲茂草 家畜牛馬各一者 十無一二 民有子女成群者 亦甚罕見 夫豈天地生物之數 偏不足於海隅乎

104) 「십륙조소」, 214면. 嗚呼 有牛所以當春賴耕 而今乃賣食 育子所以臨老資養 而又至餓斃 賑恤無人 方願適死之際 又以關軍逃奴之切隣 連系而置之牢獄 或至旬月而猶不見釋 所以樂土良田 多不暇計 而必思執瓢遠走者也

105) 「십륙조소」, 215면. 凡可以愛養斯民者 無所不爲 而生物之源 亦勿閉絕

으면 시집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남자는 홀아비가 없고, 여자는 원부가 없게 하여 일생 동안 자식을 낳아 기르며 각기 편안히 살아가게 한다면 8도 안에 자연히 버려지는 곳이 없어져 장차 바라지 않아도 부유하고 번성해질 것입니다.¹⁰⁶⁾

중봉이 제안한 것은 장한 딸을 결혼시키지 않은 자를 벌주고 과부를 재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명나라 법은 개가한 사람의 자식이라도 폐하지 않으므로 개가하고 싶은 사람은 개가하고 수절할 사람은 스스로 그 정절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과부가 아들이 있으면 전정에 방해가 있을까 싶어 몰래 친족이나 종과 간통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밤에 버리는 자가 한이 없습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금지하다가 행실을 잃어 풍속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민에게 개가하도록 하여 군사를 불어나게 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으리라 여깁니다.¹⁰⁷⁾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다 보니까 행실을 잃어 풍속을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물론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놓고 볼 때도 탄생 자체가 비도덕적이지만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이런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부도덕을 합법화하여 군사를 불어나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조선조에도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많이 있었는데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인간의 정욕을 긍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절이 어려운 과부는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⁸⁾ 이에 배한다면 중봉의 과부 개가 허용 논리는 매우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금지하다가 행실을 잃어 풍속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양민에게 개가하도록 하여 군사를 불어나게 한다면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봉에게 있어 군대를 늘리는 것은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면서도라도 달성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였다.

중봉은 노비와 승려에 대해서도 군대를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삼한 시절에는 전쟁이 매우 많았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

106) 위와 같은 곳. 女壯而不嫁者有罪 早孀而無依者許嫁 使男不曠而女無怨 百年生育 而各爲安居之地 則八道之內 自無閑曠之處 將不期而富庶矣

107) 위와 같은 곳. 大明之法 不廢再嫁之子 故欲嫁者嫁之 而貞女則自守其節 我國孀婦有子者 恐其有妨前程 陰干(『중봉집』에 ‘按干 恐奸之誤’라고 하였다.)族奴而生子夜棄者 滔滔有之 臣之愚意 以爲與其拘禁失行 以傷風化 寧許嫁與良夫 以息軍民 則不爲無補也

108) 金相助, 「朝鮮後期 野談에 나타난 再嫁의 樣相과 意味」 『漢文學論集 4』, 檀國大 漢文學會, 1986.

던 것은 노비가 별로 많지 않아서 온 땅의 백성을 나라에서 쫓았다. 고려 이후에는 전쟁이 전에 비하여 훨씬 줄었는데도 많은 전쟁에서 졌는데 이는 노비와 승려들이 많아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백성들이 적기 때문이었다.¹⁰⁹⁾

백성들은 균역을 피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한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중을 만들거나 천비에게 장가보내며 딸을 둔 사람은 천노에게 시집보내고 돈을 받아 관리의 탐학을 채워준다. 특히 내수사의 노비 집은 국가에서 보호하여주니 궁핍한 백성들은 다투어 노비로 들어가려 한다. 나라 전체로 본다면 경작지가 없는 것도 아니요,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군대에 동원할 양인의 숫자는 날로 줄어들어 군사 숫자가 20만이 못 된다고 한다.¹¹⁰⁾ 이 숫자는 나라를 지키기에 부족하다.

중봉은 계속하여 노비 문제를 군대와 연결 지어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경상일지라도 사인 수십 명을 두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천일의 무리라도 노비를 백 명씩이나 둔 자가 있으며 훈귀의 집에는 천 명이 넘기도 한다. 국세가 고단하고 약함을 앓아서 보기만 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¹¹¹⁾

중봉은 그렇기 때문에 노비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지금 만일 성상께서 먼저 중 두는 것을 제한하시어 내수사의 노비를 각자가 천 명씩만 남기시고 그 긴장한 자는 뽑아서 군정에 보충하시며 공경 이하는 차례로 한계를 정하여 힘 있는 자를 보병으로 정하시고 전토가 있으되 몸이 고단한 자는 솔정으로 정하셔서 (사람은 누구나 다섯 식구가 된 연후라야 보에 지탱할 듯 함. 대개 사노가 된 사람은 전토를 가진 자가 적기 때문임) 10년을 양성하고 10년은 가르치신다면 20년 뒤에는 백만의 정병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¹¹²⁾

109) 「십록조소」, 215면. 三韓鼎峙之時 不惟自相侵伐 而日本靺鞨 迭舉入寇 歲歲戰亡之卒 動以萬數 而能垂斃而復振者 以奴婢之法 不廣於世 而一境之民 都爲上用故也 高麗以後 統合三韓 宜乎兵眾力強 無往不克 而動輒敗北 卒以不振者 實由奴婢漸廣 僧徒日滋 而爲上用者寡也

110) 「십록조소」, 215면. 及乎我朝 軍役最苦 民不堪支 有子者不許山僧 則娶賤婢爲妻 有女者嫁賤奴 而受直 冀免一族之侵 況如內需之奴 則國家特完其戶 窮民之殘破者 尤爭投屬 目今可居之地 田非不辟也 戶非不增也 而究其新辟之田 新立之戶 則都是兩班與私奴內奴之田戶 而良人田戶 則日見消縮 正軍之數 不滿二十萬云 雖并戶率而計之 不滿四十萬矣

111) 「십록조소」, 216면. 中朝之制 雖至卿相 不敢有私人數十 而我國賤孽之屬 或有私奴百數者 勳貴之家 雖有千數 坐觀國勢之孤弱 而不思爲國家獻忠之計

112) 위와 같은 곳. 今若自上先爲限奴之制 內需奴婢 止留各千 抽其壯者 以補軍丁 而公卿以下 以次

중봉은 노비의 숫자를 줄여 백만의 군대를 갖자고 하였다. 물론 이 백만이라는 숫자는 꼭 백만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중봉은 많은 군대를 보유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군대의 훈련이다. 훈련이 되지 않은 군대는 위급한 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정은 간단하지가 않다. 군사를 훈련시키고자 해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무기와 말을 징집되는 사졸이 다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어 남에게 빌고 관원에게 두어 말의 쌀을 주어 무마하기도 한다. 별시위에 입번한 사람은 녹을 주기는 하지만 곧바로 주지 않아 전년 10월에 받아야 할 것을 그해 4월에 받고 군졸 중에는 4석을 받아야 하는데 겨우 1석만을 받아 항상 식량이 부족함을 걱정한다. 이런 군졸이 어떻게 서울에 말을 마련해 두고 전법을 익힐 수 있는가.¹¹³⁾ 신참례의 폐해도 심각하다. 무기 문제 화살 재료와 말먹이 문제, 마정의 문제 등등 중봉이 보기에 훈련 이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무릇 이 두어 가지 폐단은 모두 내외 군민들의 걱정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훈련만 시키신다면 군사들의 원망이 날로 더하여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성주께서 만일 오랑캐의 군사를 힐책하여 우리 조종들이 이루어 놓은 공적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신은 청컨대 먼저 군폐를 제거하고 군사의 장비 마련하는 일을 급히 조치할 것을 도모하십시오.¹¹⁴⁾

그런 다음에 『동국병감』과 『진법』 같은 서적을 인출하여 장수와 군사에게 반포하시고 장수는 병감을 익히고 군사는 진법을 깨우치게 할 수가 있다.¹¹⁵⁾

중봉은 軍事 중에서 특히 군대가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定限 擇其有膂力者 定爲步兵 有田而身孱者 定爲率丁 (人各五人 然後似可支保矣 蓋爲私奴者 有田者少故也) 十年生聚 而十年教訓 則百萬精兵 可辦於二十年之後矣

113) 「십륙조소」, 217면. 別侍入番者 雖給其祿 而不卽出給 或有前年十月當受者 至今年四月而乃給 外方之軍 出番之後 難於留待 當受四石者 則僅受一石而賣歸 口糧常患不足 曷能留馬於京 以待習陣乎

114) 「십륙조소」, 218면. 凡茲數弊 均爲內外軍民之患 若於此事 不爲區畫 而徒勤操鍊 則軍怨日滋 而反有害之也 聖主如欲詰爾戎兵 無壞我祖宗成烈 則臣請先於除軍弊備軍裝之事 急謀所以處置者

115) 위와 같은 곳. 又以東國兵鑿 陣法等書 印頒於將士 使其將習兵鑿 軍曉陣法

신은 이 일로 인연해서 서해 들판에서 벌곡한 일을 들었습니다. 평안도 내지의 군사들이 전혀 기율이 없어서 지나가고 머무는 곳마다 함부로 백성들의 논에서 벼단을 가져다가 말에게 먹였기 때문에 지난 가을 수확을 못하고 올 여름도 가물어서 늦게서야 씨를 뿌려 가을 수확을 기다렸는데 전과 같이 군사의 피해를 입어 적지가 되니 백성들이 밭을 돌면서 원통히 부르짖으며 우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의 곡식을 해치기 전에 우리 백성의 곡식을 해친 것입니다. 가령 적의 곡식을 다 베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상을 준 것이 백배뿐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푸라기 하나도 적의 것은 베지 못한 것입니다.¹¹⁶⁾

중봉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으로 발생한 일인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伐穀’이라는 말이다. 중봉은 명나라 군대 이야기에 뒤이어 조선 군대의 행패를 ‘벌곡’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비판하였다. 중봉은 군대가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곡식을 노략질하는 것을 ‘벌곡’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적의 곡식을 해치기 전에 우리 백성의 곡식을 해친 것’이며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손상을 준 것이 적의 곡식을 베어버린 것의 백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중봉은 그 다음으로 장수에 대하여 말하였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께서 양조와 척계광의 사적을 유신에게 명하여 전을 짓게 하고 아울러 그 글을 인쇄하여 중외의 장사에게 반포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운명에 기대어 스스로 단념하는 무리로 하여금 감동받고 사모하여 일어나게 하면 저들이 지금 세상에도 과연 이같은 명장이 있음을 알고서 비록 회계에서 것을 드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침내 먼 지에서는 크게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¹¹⁷⁾

중봉이 보기에 장수가 된 자들은 처음은 힘써 청렴하고 부지런하지만 배우지 못해서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지위가 무거워지고 녹이 후해지면 성공했다고

116) 「팔조소」, 196면. 臣因此而竊聞西海坪伐穀之舉 平安內地之軍 一無統轄 而所經所止之地 恣取民田之禾 以飼其馬 前秋失收 今夏又旱 纔付晚種 以待西成者 一被師毒 便爲赤地 繞田冤號之狀 有不可忍見者云 是則不待伐彼之穀 而先害吾民之穀也 假令伐盡彼穀 而所傷於我者 而不啻百倍 況一藁之伐不得乎

117) 「십록조소」, 197면. 伏願聖明以楊兆威繼光之事 命儒臣作傳 而并印其文 廣布於中外將士 使倚命自畫之徒 有感慕而興起 則彼知當今之世 果有如許名將 雖垂翅回溪之人 終能奮翼於滄池矣

생각하여 나랏일에 목숨을 바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에 온 힘을 다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자들도 옛날 장수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병졸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변방을 지킬 수 없게 된다.¹¹⁸⁾ 따라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가 중국에 갔을 당시에 척계광은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을 짓고 병법을 익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城臺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대가 견고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싸우기보다는 적이 오기도 전에 도망칠 궁리를 한다.¹¹⁹⁾

이상으로 『동환봉사』의 내용을 살펴본 바 중봉은 의례를 말할 때 항상 낭비가 없게 하여 국부를 탕진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16조의 ‘근본에 관계되는’ 건의 중에는 국방에 대한 것이 4조나 된다. 이렇게 본다면 중봉은 富國強兵論者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4. 『동환봉사』와 『조천일기』의 차이와 그 의미

주지하다시피 『동환봉사』와 『조천일기』는 중봉이 중국에 다녀와서 쓴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두 저술에 나타난 중국의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환봉사』에 나타나는 중국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 매우 이상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조천일기』에서 그려지는 중국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몇 예만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중봉이 국자감에 가서 본 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국자감은 바로 聖廟

118) 「팔조소」, 197면. 臣竊計國家之所以任干城者 始雖勉而清勤 由其不學而無術 故及其位重祿厚 則自謂志願之已極 而不肯鞠躬盡瘁 思所以畢命於王事者 惟其私之所在 則必極力以遂之 是以卒如悍馬 而軍威不立 邊如決堤 而國勢不競 將來有望者 惟以卽目老將爲限 不思矜奮以及于古之烈將 則他日或有可虞之事 而定無人收拾矣

119) 「십륙조소」, 219면. 雖有長城 而馬可超升 雖有煙台 而人不能居 (台上不惟無城 而一無草屋一間) 風饑雪虐之際 則薄衣戍卒 多有凍死之虞 不待賊來而反走也必矣 孰肯以死守之哉

즉 공자의사당으로 황성 동북쪽 모퉁이, 북문 안에 있다. 국초에는 원나라 당시의 옛터에 그대로 있었는데, 정통 연간(1427~1464)에 이현이 황제께 아뢰어 지금의 자리에 옮겨지었는데 황제가 손수 쓴 비문이 뜰 가운데에 있다.

문묘에 있는 周宣王 때의 石鼓 十枚는 옛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떨어져나가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彝倫堂에는 훈계의 문구를 보기가 어려운 스승과 장소에 써두었다. 이를 보고 중봉은 “장차 어떻게 학문을 가르쳐 마음과 눈을 경계하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또 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사는 황량하고 사이사이에 는 퇴락한 곳이 있었으며 뜰에는 풀이 무성하였다. 중봉은 이를 보고 “매우 한탄스럽고 속상했다”고 하였다.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양명을 높이 떠받들고¹²⁰⁾ 양명학을 깊이 숭상하는 등¹²¹⁾ 중봉이 보기에 중국은 유학을 숭상하지 않는 나라였다.¹²²⁾

조선 사신이 명 황제를 보는 눈은 우호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중봉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황제가 의정한 것은 어른과 같았으며, 경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¹²³⁾ ‘옥 같은 자질은 깊고 빼어나셨고 황금 같은 소리는 맑고 막힘이 없어서 따뜻한 음성을 들으니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하면서 만세토록 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였다.¹²⁴⁾

이 당시 중봉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황제는 나이 열두 살로 아직 어려서 친정을 하지 못하고 張居正이 정사를 주관하던 때였다. 따라서 ‘백성들이 다행히 그럭저럭 편안하고 사이는 별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명상 장거정도 환관 馮保의 견제로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¹²⁵⁾ 그리 만만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관리들의 횡포는 중봉이 중국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었다. 조선 사신단에 대한 중국 관리의 횡포는 상하를 가리지 않았다. ‘關夫’는 원래 명나라 정부에서

120) 『조천일기』, 370면. 陽明紹興府餘姚縣人也 天賦挺秀 學識深純 闡明良知聖學 又有攘內安外之功 穆宗嘉其績 封其裔爲新建伯

121) 『조천일기』, 357면

122) 중봉이 국자감에 간 일은 위의 책 『조천일기』, 379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23) 『조천일기』, 385-386면.

124) 『조천일기』, 374면. 今上年甫十二 玉質淵秀 金聲清暢 一聞冲音 感涕先零 太平萬歲之願 自此有切

125) 『조천일기』 중, 372면.

조선 사신을 돕도록 한 사람들인데, 이즈음 이들은 조정에서 주는 녹만 먹고 일은 하지 않고¹²⁶⁾ 도리어 조선 사신단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궁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없으면 온갖 횡포를 부리고¹²⁷⁾ 값싼 물건을 강매하기도 하였다.¹²⁸⁾ 횡포는 관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금 관원이 된 자 중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¹²⁹⁾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실정이었다.¹³⁰⁾ 심지어 백성들이 관리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를 저당 잡히고 딸을 파는 지경이었다.¹³¹⁾

귀한 집 자제들은 호사스럽게 자라고 학문에 열중하지 않아 어리석고 교만한 습관이 생긴다. 요행이 아버지와 형제의 덕으로 백성을 대하는 관리가 되면 후하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고 백성의 곤궁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백성이 모두 원망해 그들을 가리켜 공자라고 합니다. 지금 통판의 아버지는 지위가 상서에 이르렀으나 집안의 법도가 없어 근검하는 일로 통솔하지 않고 다만 짐승을 기르는 일에만 전념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한결같이 완악하고 게으르며 나이가 들어서도 아는 것이 없는데 갑자기 수령이 되었으니 백성의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오호라! 세록을 먹는 가문은 봉양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오히려 백성에게 해를 끼침이 이와 같으니 목민관의 선발은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³²⁾

이것은 薊州의 漁陽 역에 머물면서 백성과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중봉은 백성들이 通判을 '公子'라고 한다고 하자 '공자'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다. 이에 그 백성은 '고관의 자제로 민사에 밝지 못한 자'를 부르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¹³³⁾을 한 것이다. 『동환봉사』에서 중봉이 관리의 임명에 신중할 것을

126) 『조천일기』, 374면. 蓋館夫者 朝廷別差二十六人 使爲東人隨從 而反奪朝廷賜米 不肯服役也
 127) 『조천일기』, 위와 같은 곳.
 128) 『조천일기』, 377면.
 129) 『조천일기』, 355면.
 130) 『조천일기』, 357면.
 131) 『조천일기』, 367면. 問田頃產稅幾何 答曰 好收之年 一頃可出二百擔 擔當東方之小石云 收稅幾至七六兩 又有丁徭馬牛라役車徭官司酒錢 民不能支 至於佛兒賣女云
 132) 『조천일기』, 368면. 貴家子弟 生長豪侈 不事問學 習成愚騃 幸以父兄之蔭 便得臨民之官 則唯知自奉之當厚 不念民窮之可哀 故民含怨之 謂之公子 今茲通判之父 位至尙書 沒有家法 不率以謹勤儉之業 而但事乎禽犢之養 所以其子一向頑懶 長無知識 乍到官守 便貽民笑者也 嗚呼 世祿之家 不可無養 而愚無知者 則反貽民害如此 民牧之選 可不謹哉

주장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주장이지만 여행에서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 풍속이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중봉은 명나라 군대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명말의 군대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지식에 비추어볼 때 이상한 느낌을 준다. 중봉은 명의 군대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가 가진 군대에 대한 상식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가 군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주로 척계광의 부대였으며¹³⁴⁾ 따라서 이런 판단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조천일기』에 나타난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동환봉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 실상을 말하고 있는가? 『조천일기』는 중봉이 중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동환봉사』는 임금에게 중국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를 것을 건의한 것이다. 실제 중국의 실상은 『조천일기』에 나오는 중국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천일기』에 나오는 중국은 『동환봉사』의 그것의 반면 거울이며, 따라서 『동환봉사』는 『조천일기』를 반면 경계로 삼아 저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봉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가 실상과 다르다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欺君) 것으로 매우 큰 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33) 『조천일기』, 382면.

134) 『조천일기』, 388면. 憩於白澗鋪南村 見兵車數十 車上有樓可容四人者二 有樓而懸鼓者二 一百板隔如防牌者數十 蓋將列於水口城絕之處 以防胡也 俱駕於驢或騾也 布卒數千 擔荷軍器以行 問之則曰 連子四十萬 彌漫於石門賽長城外 故威按兵中軍將倪善 將兩萬全以赴之 軍不掠途人 驢不飼田禾 非中國政令之嚴 亦臻是哉

III. 결론

중봉이 살았던 16세기 후반기는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다단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기강이 해이해져 지배층의 착취와 압박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신음하던 때였다. 대외적으로 16세기 초엽 이래로 더욱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의 노략질이 도를 넘어 연해 지방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북방의 여진도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변방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은 이미 東西 朋黨이 시작되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중봉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인 『동환봉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왜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備倭之策을 주장하였으며 일본이 침입하였을 때는 의병을 일으키는 등 몸소 실천으로 옮긴 행동가이기도 하였다.

중봉은 어려서부터 儒敎的 선비의 교양을 엄하게 교육받고 자랐으며 직접 농사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가 관직에 나아가면서 栗谷 李珣, 土亭 李之菡, 牛溪 成渾 등 당대 名士들은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師事 받으며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을 성숙시키고 경론을 쌓게 된다. 특히 중봉은 栗谷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개혁론 역시 율곡으로 영향을 받았다. 또한 重峯은 道學을 實踐窮行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살펴 볼 때, 그의 行跡은 道學精神에서 출발하지 않음이 없었다.

중봉은 1574년에 정사 朴希立, 서장관 許封을 수행하여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갔다. 그는 명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을 『조천일기』에 남겼으며, 『조천일기』를 바탕으로 하여 『동환봉사』를 작성하였다. 『동환봉사』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으로 『조천일기』를 바탕으로 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환봉사』는 실제 임금에게 올린 「팔주소」와 임금에게 올릴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팔주소」가 선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리지 않은 「십륙주소」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동환봉사』의 세계를 국가 이념과 군주의 자세, 의례와 경제, 관인의 태도 및 士民의 기풍과 국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조선에서 국가 이념은 당연히 유교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봉은 이것을 두 편의 상소문에서 가장 먼저 논의 하였다. 「팔조소」의 ‘성묘배향지제’에서 이념의 현창에 대하여 말하였고, 「십륙조소」의 ‘격천지성’과 ‘추분지효’에서는 실천덕목으로 군주에게 충과 효를 실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환봉사』에서 군주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경연에서의 공부와 조정에서 조회를 하고 간언을 들으며 인재를 등용하라는 것이다. 중봉이 군주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경연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임금의 경연을 부지런히 하고 조회에서 정사를 볼 때 공부한 것을 시행한다면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중봉은 의례를 논하면서 민폐와 경제적인 낭비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것은 왕실의 陵寢제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陵寢제도가 지나치게 낭비된 예를 역사적으로 살폈다. 왕실의 능침제도는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봉은 규모를 줄이라고 과감히 건의하였다. 또한 중봉은 명나라의 예를 들면서 제사 예절에서도 과하게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사를 사치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공자는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한 바 있다.

중봉의 절용론은 관리들의 일상생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부읍양지례’에서 內司의 관리들은 집안에서도 풍성하게 먹고 가난한 선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며 이런 풍속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또한 ‘연음지제’에서도 조선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물자의 낭비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렇다고 중봉이 절용 절약만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전들에게 녹봉을 줄 것을 주장하면서 아전이나 서리들의 부정이 구조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경우 재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면 아전 서리에게 녹봉을 지급할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봉이 보기에 당시의 조선은 풍속이 날로 척박해지고 강상의 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임금의 교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養民하는 정책을 먼저 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책만 쓴다면 분잡하고 소란스러움만 더할 뿐이지 다스리는 데는 유익함이 없다고도 하였다.

중봉은 富國強兵論者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국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였

다. 우선 그는 국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나이가 찬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자를 벌주거나 과부를 재가킬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비 문제를 군대와 연결시키면서 노비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비 숫자를 줄여서 백만의 군대를 갖자고 하였다. 다음으로 군대의 훈련도 주장하였다. 장수는 병감을 익히고 군사는 진법을 깨우치게 하라고 하였으며 특히 군대가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

『동환봉사』와 『조천일기』는 둘 다 중봉이 중국에 다녀와서 쓴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책에서 그려지는 중국의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중에서 『조천일기』는 중봉이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다. 따라서 『조천일기』에 나오는 중국이 실제의 모습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동환봉사』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으로 중국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조선에 성인의 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라고 할 것이다. 『동환봉사』가 조천일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글이기는 하나 『동환봉사』에는 중봉이 그리는 이상적 유교국가를 그려 넣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6세기 중국의 실상은 『조천일기』에서, 중봉이 그리는 성인의 도가 실현되는 나라의 모습은 『동환봉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종주국인 명을 이상적인 국가로 제시하고 조선에서 본받아야 할 개혁적인 사상을 상소로 올리거나 올리려고 한 중봉의 사상을 『동환봉사』를 통해 드러다 보았다. 『동환봉사』에 드러난 중봉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동환봉사』와 『조천일기』의 의미와 차이에서는 16세기 명의 모습을 일부분이나마 살필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중국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실상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중봉집』, 『韓國文集叢刊』 54, 1748.
『중봉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615.
『불멸의 重峯 趙憲』, 김포문화원, 2004.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2003.
『朝鮮王朝實錄』, 國史編撰委員會, 1970.
『國朝人物考』, 首爾大出版部, 1978.
『栗穀全書』,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변형석, 『重峯 趙憲詩選』, 중봉선생기념사업회, 2007.

2. 논문 단행본, 기타

- 강동금, 「율곡 철학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1995.
금장태, 『한국 실학의 정신』, 제이앤씨, 2008.
김문준, 「중봉 조헌의 의리전신과 무실정신」, 『한국사상과 문화』 38, 2007
_____, 「중봉 조헌과 700 의사의 민족전신사의 의의」, 중봉기념사업회, 2010.
金相助, 「朝鮮後期 野談에 나타난 再嫁의 樣相과 意味」, 『漢文學論集』 4, 檀國大漢文學會, 1986.
김옥희, 「임진의병장 조중봉에 관한 연구」, 『녹우연구논집』 6, 1964.

- 김용덕, 「중봉 조헌 연구」, 『아세아학보』 제1집, 고려대, 1965.
- _____, 「중봉 조헌 연구」, 『성곡논총제』 제5집, 성곡문화재단, 1974.
- _____, 「조선후기 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1977
- 김인규, 「중봉 조헌 개혁사상의 실학적 특성」, 『동양철학연구』 41, 2005.
- 김재우, 「율곡의 도학사상과 경세론 연구」,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진, 「조헌 사상 연구: 국정개혁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1976.
- 김지현, 「조헌의 『조천일기』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제40집, 온지학회, 2014.
- 김천석, 「중봉 조헌」, 『한양』 제12집, 1963.
- 류승국, 『한국 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수원, 1998.
- _____, 『동양철학연구』, 동방학술연수원, 1998.
- _____,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리기용, 「중봉 조헌의 개혁사상과 의병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 _____, 「율곡의 도학과 사회개혁」, 율곡연구원, 2010.
- 박병헌, 「중봉 조헌의 학문과 시세계」, 동국대학 교육대학원, 1992.
- 박영철, 「중봉 조헌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교육대학원, 1996
- 박완규, 「중봉 조헌 연구」,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1982.
- 변형석, 『중봉 조헌 시선』, 중봉조헌선생기념사업회, 2007.
- 이동인,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2004.
-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 1997.
- _____, 『16세기 한국 성리학과의 철학사상과 역사의식』, 심산, 2007.
- _____, 「중봉 조헌의 역사의식과 국난대책」, 『동대논총』 제6집, 동덕여대, 1976.
- 이동준 외, 『근세한국철학의 재조명』, 심산, 2007.
- _____, 외, 『동방사상과 인문정신』, 심산, 2007.
- 이상익, 『『동환봉사』를 통해 본 중봉 조헌의 개혁사상』,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 _____, 「중봉 조헌의 상소문을 통해 본 오늘날 대북정책의 방향」, 신아시아연구

- 회, 2007.
- 이상주, 「조현의 율원구곡과 율원구곡시」, 『중원문화논총』 10, 2006.
- 이석린, 『임란의병장 조현연구』, 신구문화사, 1993.
- _____, 『조현 연구』, 신구문화사, 1994.
- _____, 「중봉 조현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 _____, 「조현의 개혁론 연구」, 『경희사학』 14, 1987.
- _____, 「조현의 개혁사상과 학문의 실천」, 『호서문화연구』 14, 1995.
- _____, 「중봉 조현의 군제개혁에 대한 연구: 동환봉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74.
- 이영경, 「율곡의 도학사상 연구」, 경북대학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영자, 「율곡의 도학사상과 중봉의 의리사상」, 『철학연구』 97, 2006.
-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중봉 조현의 의리사상」, 『동양철학연구 39』, 2004.
- _____, 「문열공 중봉 조현」, 『동국 18현』 하, 율곡사상연구원, 1999.
- 오세창, 「조현의 사회경제사상」, 『대구사학』 제7,8집, 대구사학회, 1973.
- 이하준, 「중봉 조현의 인생과 사상」, 한글한자문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5.
- _____, 「구국의 선비 중봉 조현」, 공간미디어, 2008.
- _____, 「중봉 조현의 학문사상과 시 연구」, 가톨릭중앙의료원 성의기초과학연구비, 2010.
- 정병련, 「중봉 조현의 의리사상」, 『유교사상연구』 9, 1997.
- _____, 「중봉 조현의 기의순절과 의리사상」, 『한민족의 의리사상과 도덕성 회복』, 한국유교학회, 1997.
- _____, 「중봉 조현의 윤리사」, 『한국전통윤리사상의 현대적 조명』,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주용성, 「중봉 조현의 실천철학연구」,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영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1975.
- _____(편), 『조현전서』, 중봉번역발간추진회, 1974.

- _____, 「임란의병의 성격」, 『한국사연구』 8, 1960.
- 한기동, 「중봉 조헌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 석사학위논문, 1998.
- 황의동, 「울곡과 중봉의 도학정신」, 충남대학 유학연구소, 2012.
- 萬琪, 「明朝文官俸祿探析」, 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方志遠, 「明朝百年的社會進步與社會問題」, 吉林大學 社會科學學報, 2012.
- 姚沛濤, 「許篈『荷穀先生朝天記』探蹟」,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_____, 「朝鮮朝使臣眼中明朝萬曆初年的沉重賦役 : 以許篈『荷穀先生朝天記』爲中心」, 延邊大學 人文社會科學學院, 2013.
- 肖發生, 「明前期荒政中的腐敗問題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宋承灝, 「明朝腐敗窩案是如何查處的」, 人民論壇, 2014.
- 席皓, 「中國近古官僚制的強專制力與弱基礎權利」, 汕頭大學學報, 2013.
- 楊昕, 「『朝天錄』中的明代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王鑫, 「明朝官吏職務犯罪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張化斌, 「簡論明朝中後期社會風氣變化的原因及影響」, 湖北電大學刊, 1997.
- 趙勇, 「明代漢族服飾探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肖立軍, 「從財政角度看明朝的腐敗與滅亡」, 天津師範專科學校, 1994.

中文摘要

〈東還封事〉研究

詹雪嬌

韓中兩國的交流源遠流長，長期以來在文化，政治，經濟等方面進行了很多交流，兩國在確立了冊封朝貢關係之後爲了進一步了解發展狀況互相派遣了使臣，而這些使臣在使行過程中一路上記錄下來的所見所聞成爲當今研究兩國曆史與文化的重要資料。本文研究的作品《重峯集》中的〈東還封事〉爲朝鮮時期使臣重峯出使明朝回還朝鮮上奏的上疏文，其中八條疏已上奏但沒被王所採納，至此接下來的十六條疏並沒上奏，上疏文裏面記錄了明朝經濟，文化，政治的穩定與繁榮並且重峯在此提出在朝鮮要在本國已有的文化基礎上學習明朝優秀的文化從此改進朝鮮落後的經濟政治文化。

從此在東還封事中怎樣改善並且繁榮國家上提出了具體方案，本文將其總結分出六方面，即國家理念，君主的姿態，儀禮和經濟，官人的態度，士民的風氣和國防，但是重峯並不是全部接受明朝的文化，對有些也持有批判的態度，本文對此也進行了具體分析。

但是事實上明朝的現實情況並非像〈東還封事〉裏所闡述的那麼繁榮，因爲重峯的另一部作品〈朝天日記〉是當時重峯出行明朝一路上以及在中國期間的所見所聞，是對明朝當時真實情況的所述，當時明朝末期各方面成下滑趨勢，政治只剩腐敗，但是，重峯並無必要將〈朝天日記〉中明朝的真實面貌上奏與王，相反〈東還封事〉的提出對國家更有利益。

本文結合明朝和朝鮮的時代背景，以及對〈朝天日記〉和〈東還封事〉內容的具體分析了解了重峯的改革思想以及學問觀，從兩部作品的不同可以看出重峯的愛國心以及想改進朝鮮的迫切之心，不僅對了解17世紀中韓兩國的曆史有重大意義，而且對重峯本人的改革思想以及學問觀也有更深一步更具體的認知。

